

國內 流通 韓藥材의 起源植物에 關한 考察

김관수* · 김호철**†

*목포대학교 생물산업학부 생약자원전공,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한약리학교실

Review on Original Plants of Oriental Medicines Used in Korea

Kwan-Su Kim* and Ho-Cheol Kim**†

*Dept. of Medicinal Plant Res., Sch. of Biotechn. & Res., Mokpo Nat'l Univ., Muan 534-729, Korea

**Dept. of Herbal Pharmacology, Grad. Sch. of East-West Medical Sci., Kyung Hee Univ., Seoul 130-701, Korea

ABSTRACT : To clarify the botanical origins of oriental medicines which have been argued or confused for plant origins, species of original plants were investigated through the textural research for oriental medicines and the comparison of Chinese, Korean, Japanese and North Korean Pharmacopocia. Twenty oriental medicines were studied; *Angelicae Gigantis Radix*, *Rhei Rhizoma*, *Atractylodis Rhizoma Alba*, *Aconiti Lateralis Radix Preparata*, *Acanthopanax Cortex*, *Osterici Radix*, *Cnidii Rhizoma*, *Saposhnikovae Radix*, *Magnoliae Cortex*, *Paeoniae Radix*, *Liriopis Tuber*, *Zanthoxyli Fructus*, *Achyranthis Radix*, *Sinomeni Caulis et Rhizoma*, *Polygonati Rhizoma*, *Cinnamomi Cortex*, *Visci Herba et Loranthis Ramulus*, *Fritillariae Thunbergii Bulbus*, *Pogostemonis Herba*, and *Curcumae Longae Radix*.

Keywords: botanical origin, oriental medicines, plant origin, original plant species, medicinal plants

韓藥材(藥用植物)의 有效性은 최종적으로 本草方劑學的 效能을 기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효성은 각 한약의 재료가 되는 약용식물들의 식물분류측면의 起源, 性狀, 炮制, 性味, 歸經, 有毒無毒, 效能, 臨床應用 등 여러 요인과 관련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한약재의 기원(origin), 즉 식물종(plant species)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해당 한약재에는 같거나 유사한 약효를 갖는 여러 가지의 약용식물이 포함되므로 본초학적 분류 및 약효에 근거한 응용을 위해서는 한약재의 진위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약용식물의 식물분류학적인 종, 품종, 그리고 산지 등 기원이 분명하여야 정확한 한약재의 약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약재의 생산, 품질개량, 건전한 유통, 가공이용 등을 위해서는 기원문제가 우선 해결되고 기원식물이 명확하여야 관련분야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의 기원은 한약분야에서 사용하

는 용어로 작물의 원산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한약재의 眞僞鑑別 및 品質評價, 그리고 식물의 分類同定 측면에서 올바른 한약재의 원료를 의미하며 生物學的 起源(botanical origin) 또는 起源植物(species of origin plant)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한약재의 이용이 늘고 있고 아울러 한약재의 유통이 복잡해지므로 오용 및 남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외국인 한약재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한약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원, 성분, 약효 등의 평가가 절실히 필요하다. 한약재의 유통면에서 본초학적 기원식물이 다른 경우, 약리성분이 다른 경우, 誤用이나 誤稱되는 경우, 이용부위나 생육년수가 다른 경우 등 문제점이 있으며, 재배생산이나 품종개량면에서도 기원식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많은 혼란을 예상할 수 있다. 의약품공정서인 大韓藥典 및 大韓藥典外韓藥(生藥)規格集에 수록된 한약재의 기원 약용식물이 규정되어 있는데, 한약재의 성분 및 效能에 대한 연구와 함께 임상응용면에서 발전하고 한약재의 效能이 밝혀짐에 따라 기원식물에 대한 약전의 계속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건전한 流通體系가 확립되어야 양질의 안전한 한약재를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건강의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고에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韓藥材의 起源植物에 대해 간략히 고찰하였다.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등의 藥典에 규정되어 있는 기원식물을 비교하였으며 각 한약재의 기원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올바른 기원식물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기원식물에 따른 藥性이나 含有成分, 그리고 藥理效果를 비교 및 정리하여 기원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한약전에 수록되어 있는 품목 중 기원이 오칭되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는 20가지의 한약재를 택하여 조사하였다. 앞으로 자연생태 및 무역환경이 변하고 한약 및 한의학에 대한 연구결과가 늘어남에 따라 한약재의 性味나 效能은 바뀔 것이고 기원식물도 변할 것이나, 본 고는 앞으로의 연구 및 응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각국의 기원식물의 비교를 위해서 참고한 문헌은 대한약전 제8

†Corresponding author: (Phone) +82-2-961-0419 (E-mail) hckim@khu.ac.kr

<Received November 1, 2003>

개정(2003, KP) 및 대한약전의한약규격집(2003, KHP), 中華人民共和國藥典(2000, CP), 日本藥局方(2001, J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전(1996, DP) 등 공정서들이며, 각 한약재의 性味, 歸經, 效能 등은 中華本草(1999) 등 여러 本草書를 참조하였다.

流通 韓藥材의 起源 比較

국내 유통 한약재의 기원식물에 대하여 비교 조사된 생약들은 當歸(Angelica Gigas Root), 大黃(Rhubarb), 白朮(Atractylodes Rhizome White), 附子(Prepared Aconite), 五加皮(Acanthopanax Root Bark), 羌活(Ostercicum Root), 川芎(Cnidium Rhizome), 防風(Saposhnikova Root), 厚朴(Magonolia Bark), 芍藥(Peony Root), 麥門冬(Liriope Tuber), 山椒(Zanthoxylum Fruit), 牛膝(Achyranthes Root), 防己(Sinomenium Stem), 黃精(Polygonatum Rhizome), 桂皮(Cinnamon Bark), 桑寄生(Viscum Herb), 浙貝母(Fritillaria Thunbergii Bulb), 廣藿香(Pogostemon Herb), 鬱金(Curcuma Root) 등 20종이다.

當歸

當歸는 국내생산 약용작물 중 2002년 현재 더덕 다음으로 많은 재배면적(1,282 ha)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참당귀(토당귀), 일당귀(왜당귀), 중국당귀(당귀) 등 起源 및 效能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생약 중에 하나이다. 대한약전에서 當歸는 참당귀 *Angelica gigas*(산형과 Umbelliferae)의 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초서에서 補血藥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補血의 效能에 대한 이견이 있다.

조선약전에서도 대한약전과 기원식물이 동일하다. 중국약전에 當歸는 *Angelica sinensis*의 뿌리이며 性味는 甘辛, 溫이며 肝心脾經으로 들어가 補血活血, 調經止痛, 潤腸通便의 效能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약전에는 *A. acutiloba* 또는 北海當歸 *A. acutiloba* var. *sugiyamae*로 정하고 있으며, 북해당귀에는 北海島當歸와 大和當歸[大深當歸]가 있다고 하였다.

중국문헌에서 참당귀는 朝鮮當歸(土當歸, 大獨活) *Angelica gigas*, 중국당귀는 當歸 *A. sinensis*[*A. polymorpha* var. *sinensis*], 일당귀는 東當歸 *A. acutiloba*[*Ligusticum acutilobum*]를 기원식물로 하고 있다. 朝鮮當歸는 性味가 辛, 溫하고 祛風通絡, 活血止痛의 效能이 있으며, 當歸는 甘辛苦, 溫하고 肝心脾經으로 들어가 補血, 活血, 調經止痛, 潤燥滑腸의 效能이 있고, 東當歸는 辛甘, 溫하며 補血活血, 調經止痛, 潤燥滑腸으로, 중국당귀와 동당귀의 效能은 동일하고 조선당귀는 다르다고 하였다. 약재의 性味를 보면 辛溫한 참당귀보다는 補血과 관련된 甘溫의 性味를 가진 중국당귀가 補血藥으로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당귀의 대용품으로 길림 연변지역에서 재배 생산하는 東當歸 *Angelica acutiloba*인 大和歸와

화북지역에서 생산되는 歐當歸[lovage] *Levisticum officinale*(현재는 당귀와 效能이 맞지 않아 사용을 금하고 있음)가 있다. 그리고 당귀의 僞品으로 생약명이 獨活인 重齒毛當歸 *Angelica pubescens* f. *biserrata*가 있다.

성분면에서 비교하면, 중국당귀는 carvacrol, ligustilide 등, 일당귀는 ligustilide, *n*-butylidene-phthalide, cnidilide 등, 참당귀는 중국당귀와 일당귀의 phthalide 성분이 아닌 coumarin 성분으로 decursin, decursinol angelate 등을 함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당귀[참당귀, 토당귀]는 중국이나 일본의 당귀와는 다르며 중국당귀와 일당귀는 함유성분이 유사하여 동등한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 생산되는 참당귀가 본초학적 보혈약으로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약리 효과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임상응용에서 當歸身은 補血에 뛰어나고 當歸尾는 活血祛瘀에 좋으며 全體 當歸(全當歸)는 補血活血하는 특성을 나타낸다고 하고, 當歸頭는 上行하여 止血하고 當歸身은 中守하여 養血하고 當歸梢(尾)는 下流하여 破血하고 當歸全은 不走하여 活血한다고 하니, 부위별 效能 및 함유성분의 차이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大黃

대황은 瀉下藥으로 대한약전에서 장엽대황(掌葉大黃) *Rheum palmatum*, 당고특대황(唐古特大黃) *R. tanguticum*, 약용대황(藥用大黃) *R. officinale*(마디풀과 Polygonaceae)의 뿌리줄기를 기원으로 하고 성분규격으로 sennoside A 0.2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8개정에서 기원식물 중 장군풀 *R. coreanum*은 삭제되었는데, 이 식물은 함경도 지역에서 자생하는 것으로 특산식물이다. 나머지 대황의 기원식물은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지 않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식물명 대황은 *Rheum undulatum*으로 생약명이 중대황이라 한다.

조선약전에서 대황의 기원식물로 장군풀 *R. coreanum*만을 정하고 있으며 유사약재로 집대황(재배대황) *R. undulatum*의 혼입을 금하고 있다. 일본약전에서는 *Rheum palmatum*, *R. tanguticum*, *R. officinale*, *R. coreanum* 또는 이것들의 種間雜種의 根莖을 대황의 기원식물로 정하고 있다. 중간잡종은 장엽대황과 장군풀의 교잡종으로 伸州大黃이 해당된다. 중국약전에서는 掌葉大黃 *R. palmatum*, 唐古特大黃 *R. tanguticum* 또는 藥用大黃 *R. officinale*의 뿌리 또는 뿌리줄기로 정의하고 있으며, 性味는 苦, 寒하며 脾胃大腸肝心包經으로 들어가서 瀉熱通腸, 涼血解毒, 逐瘀通經의 效能을 나타낸다.

중국문헌에서 대황의 기원식물은 掌葉大黃 *R. palmatum*[葵葉大黃, 北大黃, 天水大黃], 唐古特大黃 *R. palmatum* var. *tanguticum*[*R. tanguticum*, 鷄爪大黃, 北大黃] 또는 藥用大黃 *R. officinale*[南大黃, 馬蹄大黃, 雅黃]의 根莖이며, 性味는 苦, 寒하며 胃大腸肝脾經으로 들어가서 攻積滯, 清濕熱, 瀉火, 涼血, 祛瘀, 解毒의 效能을 나타낸다. 각 대황의 총 anthraquinone 함량은 장엽대황이 2.034%-2.984%, 당고특대황

은 6.250%, 약용대황은 4.490-5.750%인데, anthraquinone 성분에는 emodin형으로 chrysophanol, emodin, physcion, aloemodin, rhein 등과 이들 배당체, 그리고 sennoside A, B 등이 있다.

아래 표처럼 대황속 식물을 나타낼 수 있는데, 보통 금문계와 토대황(산대황)계로 구분한다.

<i>R. officinale</i>	藥用大黃	雅黃, 唐大黃, 馬蹄大黃, 雲南大黃	南大黃	錦紋系
<i>R. palmatum</i>	掌葉大黃	錦紋大黃, 개장군풀, 錦紋軍, 川軍	北大黃, 錦紋大黃	
<i>R. tanguticum</i>	唐古特大黃	西大黃, 매대황		
<i>R. coreanum</i>	朝鮮大黃	장군풀, 왕대황		
<i>R. laciniatum</i>		錦文系大黃		
<i>R. pontaninii</i>				
<i>R. rubrifolium</i>				
<i>R. undulatum</i>	波葉大黃	種大黃, 和大黃	上大黃系	
<i>R. hoataoense</i>	河套大黃			
<i>R. emodi</i>	藏邊大黃	印度大黃		
<i>R. speciforme</i>	穗花大黃			
<i>R. wirochii</i>	天山大黃			
<i>R. rhaponticum</i>	食用大黃	rhaponticum根		
<i>R. franzenbachii</i>	華北大黃	籽黃, 臺黃, 芋大黃, 土耳其大黃		
<i>R. compactum</i>	新疆大黃			
<i>R. collinianum</i>				

또한 금문계대황은 西宇大黃[上品; 唐古特大黃], 銓水型大黃[中品; 掌葉大黃], 馬蹄型大黃[下品; 雅黃(掌葉大黃, 唐古特大黃), 南川大黃(藥用大黃)], 또는 西大黃[掌葉 또는 唐古特大黃], 雅黃[掌葉 또는 唐古特大黃], 南大黃[藥用大黃] 등 품질이나 산지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種大黃은 한약규격집에 종대황 *Rheum undulatum*의 뿌리줄기이며 이 뿌리줄기를 그대로 또는 껍질을 깎아서 모양을 다듬거나 또는 그대로 가로로 자르거나 세로로 쪼개어 말린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대황의 확인시험 항목에서 보통 토대황계 대황들에 함유되어 있는 stilbene 배당체인 rhaponticin 성분을 표준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瀉下藥으로 종대황을 대용하기도 하나 瀉下作用의 주성분인 sennoside가 없거나 사하작용이 매우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약규격집에 수재된 羊蹄根은 별명이 野大黃, 羊蹄大黃이며 참소리쟁이 *Rumex japonicus* 또는 기타 동속근연식물의 뿌리를 기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止血藥으로 본초서에 분류되어 있다.

조선약전에서 소루장이(양제근과 하여 소루장이(송구지), 즉 소리쟁이 *Rumex crispus*를 기원식물로 규정하고 있다. 괴싱아는 북한에서 수영 *Rumex acetosa*을 일컫는 것으로 대황의 대용품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대황과 유사하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는 *Rumex*속 식물의 생약으로 牛耳大黃, 羊蹄, 酸模, 上大黃이 있는데 性味와 效能이 서로 유사한 경향이다. 牛耳大黃은 우리나라의 소리쟁이와 같은 식물인 皺葉酸模 *Rumex crispus*의 根을 기원으로 하고, 性味가 苦, 寒하며 心 肝 大腸經에 들어가 清熱解毒, 涼血止血, 通便殺蟲의 效能이 있다. 羊蹄는 우리나라의 참소리쟁이와 같은 식물인 羊蹄 *R. japonicus*와 尼泊尔酸模 *R. nepalensis*의 根을 기원으로 하며, 性味는 苦, 寒하고 心 肝 大腸經으로 들어가 清熱通便, 涼血止血, 殺蟲止痒의 效能이 있다. 酸模는 우리나라의 수영과 같은 식물로 *R. acetosa*를 기원으로 하며, 性味는 酸 微苦, 寒하고 涼血止血, 泄熱通便, 利尿, 殺蟲의 效能이 있다. 上大黃은 鈍葉酸模 *Rumex obtusifolius* [*R. madaio*]의 根을 기원으로 하며, 性味는 苦 辛, 涼하고 清熱解毒, 涼血止血, 祛瘀消腫, 通便, 殺蟲의 效能이 있다. 牛耳大黃, 羊蹄, 酸模, 上大黃 모두 chrysophanol, physcion, emodin 등 anthraquinone과 musizin 등을 함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Rumex*속 식물의 생약들이 대황의 대용품이 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사하작용 및 sennoside 등 성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白朮

白朮은 補氣藥으로 본초서에서 구분하고 있으며 蒼朮의 芳香化濕藥과는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출류의 일반적인 기원식물의 차이를 보면 백출류로 *Atractylodes japonica*, *A. ovata*(*A. macrocephala*)는 보통 주피를 제거한 뿌리를 사용하며, 창출류로 *A. lancea*, *A. chinensis*는 보통 주피를 제거하지 않은 뿌리를 사용한다. 백출 *A. ovata*와 *A. macrocephala*는 동일식물의 종이며 문헌 기록연대를 보아서 *A. ovata*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창출류 생약은 국내에서 자생하지 않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출류 생약의 기원이 문제가 되었던 점은 국내에서 동일한 삼주 *Atractylodes japonica*의 식물체를 가지고 뿌리의 부위 및 수처리정에 따라 백출과 창출로 구별하였던 것이다. 백출은 주피를 제거하거나 어린 근경(新根), 그리고 섬유질이 적고 육질이 많고 비대한 부분이며, 창출은 이와는 반대로 주피를 제거하지 않거나 老根莖(舊根), 그리고 섬유질이 많아 육질이 적고 굵기가 가는 부분으로 하여 관행적으로 사용하였다. 대한약전 제7개정부터 우리나라 삼주를 중국산 백출 *A. macrocephala*과 함유성분(atractylon 등)이 유사하다 하여 백출로 규정하고 창출과 기원식물을 분리하여 수재하고 있다.

대한약전에서 창출은 가는잎삼주라 하는 모창출(蒼蒼朮) *Atractylodes lancea* 또는 만주삼주라 하는 북창출(北蒼朮) *A.*

chinensis(국화과 Compositae)의 뿌리줄기로 불규칙하게 구부러진 원주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백출은 삼주 *A. japonica* 또는 당백출이라 했던 백출(白朮) *A. macrocephala*의 뿌리줄기 또는 주피를 제거한 것으로 규정하고 성상에서 삼주는 고르지 않은 덩어리 또는 일정하지 않게 구부러진 원주상의 모양이고 백출(白朮)은 불규칙하게 비대한 덩이 모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약전의 백출과 창출의 기원식물은 대한약전과 동일하다. 조선약전에서 삼주(창출)는 조선삼주 *A. koreana*를 기원으로, 흰삼주(백출)는 삼주 *A. japonica*를 기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선삼주 *Attractylodes koreana*[*A. lancea* var. *simplicifolia*]는 조선창출, 용원삼주라 부르며, 주성분이 *attractylodin*이며 삼주의 주성분인 *attractylon*은 매우 적거나 없다고 한다. 조선삼주는 모창출 *A. lancea*의 변종으로 창출류에 속하며, 북한에서 자생하고 창출로 사용하고 있는 종이다. 중국약전에서 창출은 茅蒼朮 *Attractylodes lancea* 혹은 北蒼朮 *A. chinensis*의 근경을 기원으로 하며, 性味는 辛 苦, 溫하며 脾 胃 肝經으로 들어가 燥濕健脾, 祛風, 散寒, 明目的 效能을 나타낸다. 그리고 백출은 白朮 *A. macrocephala*만을 기원으로 하며, 性味는 苦 甘, 溫하며 脾 胃經으로 들어가 健脾益氣, 燥濕利水, 止汗, 安胎의 效能이 있다.

중국에서 蒼朮은 赤朮이라고도 하며 茅蒼朮 *Attractylodes lancea*[*Attractylis lancea*; *A. ovata*, 南蒼朮], 北蒼朮 *A. lancea* var. *chinensis*[*A. chinensis*; *Attractylis chinensis*], 關蒼朮 *A. japonica*[東蒼朮] 등을 기원으로 하고, 白朮은 白朮 *A. macrocephala*[*Attractylis macrocephala*]을 기원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며 백출로 사용하는 삼주는 관창출이라 하여 창출류에 포함시켰다. 출류 생약은 <神農本草經>에서 朮로 동일하게 규정하다가 6세기 이후인 陶弘景의 <本草經集注>에서 赤朮(蒼朮)과 白朮로 문헌상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창출과 백출의 性味 및 效能은 중국약전과 동일하다. 창출에 함유된 정유함량은 모창출이 3.25-6.92%, 북창출이 1.5%를 함유하며, 정유성분에는 *hinesol*, β -*eudesmol*, *attractylodin*, *acetoxylattractylon*, *hydroxylattractylon* 등이 있다. 백출의 정유성분은 *sesquiterpenoid* 성분인 *attractylon*, *attractylenolide I*, *II*, *III*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삼주는 한국, 북한, 일본 약전에서 백출로 규정하였으나 중국약전에서는 포함시키지 않고 *A. macrocephala*만을 규정하였으며, 중국문헌상 창출의 기원식물로 포함하였다. 삼주 *A. japonica*는 뿌리의 결절모양이 창출과 비슷한 점이 있으나 함유성분이 백출과 유사하여 백출로 포함시키고 있다. 출류 생약인 *Attractylodes*속 식물에 대한 계통발생 연구에서 *A. lancea*, *A. chinensis*, *A. koreana* 및 *A. japonica*는 *A. ovata*와는 다른 군으로 구분되며, *A. japonica*와 *A. lancea*, 두 종이 가장 가까운 유연관계를 보였다는 보고(Mizukami et al., 1998)도 있으므로 식물분류학적인 근연

관계와 함께 종별 效能 비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국내에서 자생하는 삼주는 잎과 뿌리 모양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적 변이를 나타내므로, 앞으로 삼주뿌리의 부위별, 개체별 및 년생별 성분 및 약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 根收量性이 높은 중국 백출 *A. macrocephala*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재배 생산하고 있으나, 식물 종이 다르고 함유성분도 유사하나 차이가 있으므로 성분 뿐만 아니라 약리효과면에서도 비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임상응용에서 창출, 백출 모두 燥濕健脾이나, 백출은 이외에도 補氣, 止汗, 安胎의 效能이 있으며 창출은 燥濕작용이 더 강하고 發汗散邪의 효과도 있다. 그래서 脾弱之虛證, 止汗安胎에는 백출을 주로 사용하고 濕盛之實證, 發汗散邪에는 창출을 사용한다고 한다.

附子

附子は 溫裏藥에 속하며 기원식물은 대한약전에서 오두(烏頭) *Aconitum carmichaeli*(미나리아재비과 Ranunculaceae)의 자근(子根)을 가공하여 만든 염부자(鹽附子), 제부자(製附子), 포부자(炮附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부자는 흑순편(黑順片)과 백부편(白附片)으로 구분된다. 오두 식물체의 덩이뿌리에서 자근과 수염뿌리를 제거한 母根을 川烏라 하며, 부자는 *aconitine* 등 *alkaloid* 성분을 함유하여 有毒하며 항염, 진통작용을 가지고 있다.

개정판(2002) 한약규격집에서 烏頭는 川烏로 개정하였으며, 川烏는 烏頭 *Aconitum carmichaeli*의 母根의 덩이뿌리로 규정하고 있다. 草烏는 祛風濕藥에 속하며 별명이 토부자(土附子)이며 녹젓가락나물 *A. ciliare* 또는 기타 동속식물(미나리아재비과 Ranunculaceae)의 덩이뿌리로 한약규격집에서 기원을 규정하고 있다. 부자(오두)의 식물명은 바꽃 *A. carmichaeli*이나 국내에서 자생하지 않는 종이며, 우리나라에서 야생하는 초오속 *Aconitum* 식물은 지리바꽃 *A. chiisanense*, 세잎돌쩌귀 *A. triphyllum*, 녹젓가락나물 *A. ciliare*, 두구꽃 *A. jaluense*, 한라돌쩌귀 *A. napiforme*, 짙눈바꽃 *A. proliferum*, 개짙눈꽃 *A. pseudoproliferum* 등인데 이중 세잎돌쩌귀 *A. triphyllum*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종이다.

조선약전에서 부자(찢부자)는 동일한 식물인 부자(오두)를 기원으로 하고 있으며, 바꽃뿌리(초오)는 이삭바꽃 *A. kusnezovii*과 나도짙눈바꽃 *A. pseudoproliferum*의 덩이뿌리를 기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약전에는 附子, 川烏, 草烏가 수재되어 있는데, 부자는 烏頭 *A. carmichaeli*의 자근의 加工品을 기원으로 하며, 性味는 辛 甘, 大熱, 有毒하고 心 腎 脾經으로 들어가 回陽救逆, 補火助陽, 逐風寒濕邪의 效能이 있다. 川烏는 烏頭 *A. carmichaeli*의 母根을 기원으로 하며, 性味는 辛 苦, 熱, 大毒하고 心 肝 腎 脾經으로 들어가 祛風除濕, 溫經止痛의 效能을 나타내며, 制川烏는 川烏의 炮制加工品이다. 草烏는 北烏頭 *A. kusnezoffii*의 塊根을 기원으로 하고, 性味와

效能은 川烏와 동일하며, 制草烏는 草烏의 炮制加工品이다.

국내 시중에서는 烏頭의 子根을 附子, 재배종을 川烏, 야생종을 草烏로 구분하여 유통되고 있는데 오두의 뿌리는 식물은 동일하나 약용부위별로 생약명을 달리 하고 있다.

植物明	藥用部位	生藥名	異名
烏頭 <i>A. carmichaeli</i>	母根	烏頭(川烏), 草烏頭(야생품)	川烏, 草烏(재배품)
	子根	附子, 天雄, 側子, 漏籃子	川烏, 附子(가공품)

중국문헌에서 川烏頭, 附子, 草烏頭, 天雄, 側子, 漏籃子 등 烏頭의 뿌리 부위 및 특성별로 구분하였는데, 川烏頭는 烏頭(栽培品) *Aconitum carmichaeli*의 母根(塊根)이며, 이명으로 川烏라 하고 야생품을 草烏라고 부르기도 한다. 附子是 烏頭 *Aconitum carmichaeli*(栽培品)의 側根(子根)을 기원으로 정하고 있다. 草烏頭는 이명으로 草烏라 하며 烏頭(野生品) *Aconitum carmichaeli*와 北烏頭(이삭바꽃) *A. kusnezoffii*의 塊根을 기원식물로 하며, 근연식물로 多根烏頭 *A. kerakolicum*, 直線烏頭 *A. transectum*, 展毛烏頭 var. *truppelianum*, 黃山烏頭 var. *hwangshanicum*[*A. chinense* var. *hwangshanicum*], 毛葉烏頭 var. *pubescens* 등을 중국내에서 사용하기도 한다. 天雄은 烏頭의 長形의 塊根을, 側子是 오두 자근(부자)의 小者를, 漏籃子是 오두 자근의 瑣細者를 기원식물로 하고 있다. 천오두와 부자는 aconitine, hyaconitine, mesaconitine, higenamine 등 alkaloid 성분을 함유하며, 強心作用 성분은 higenamine이고 止痛作用 성분은 aconitine으로 알려져 있다. 천오두의 性味는 辛苦, 熱, 大毒하고 心 肝 脾 腎經으로 들어가 祛風除濕, 溫經, 散寒止痛의 效能을 나타내고, 부자는 辛苦, 熱, 有毒하며 心 腎 脾經으로 들어가 回陽救逆, 補火助陽, 散寒除濕의 效能을 나타낸다. 草烏頭의 性味는 辛苦, 熱, 大毒하며 心 肝 脾經으로 들어가 祛風除濕, 溫經散寒, 消腫止痛의 效能을 나타내며, 天雄의 性味는 辛 熱, 大毒하고 腎經으로 들어가 祛風散寒, 益火助陽의 效能을 가진다.

부자, 오두(천오), 초오의 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原植物	生長條件	藥用部位	生藥名
烏頭 <i>A. carmichaeli</i>	栽培	子根	附子(加工品)
		母根	川烏(生品)
北烏頭 <i>A. kusnezoffii</i>	野生	子根	草烏(生品)
		母根	

한약규격집에 수재된 백부자(白附子)는 *A. koreanum*의 덩이뿌리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흰바꽃(노랑돌쩌귀)이라고 하며 hyaconitine을 함유하고 있다. 조선약전에 노랑돌쩌귀(백부

자)라 하여 동일식물을 기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백부자는 중국에서 關白附라 하여 黃花烏頭 *A. coreanum* [*A. delavayi* var. *coreanum*; *A. komarovii*]의 괴근을 기원으로 하며, guanfu-bases, hyaconitine 등을 함유하고, 性味는 辛 甘, 熱, 有毒하고 胃 肝經으로 들어가 祛風痰, 定惊癇, 散寒止痛의 效能을 가진다. 한편 중국약전에 수재되어 있는 백부자는 별명이 禹白附이고 천남성과 Araceae 식물인 獨角蓮 *Typhonium giganteum*의 괴경을 기원으로 하며, 性味는 辛 溫, 有毒하며 胃 肝經에 들어가 祛風痰, 定惊搖, 解毒散結止痛의 效能이 있다. 이 생약은 우리나라의 백부자와는 다르며 aconitine과 같은 alkaloid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있다. 관백부와 백부자(우백부)는 모두 祛風痰의 效能이 있지만 관백부는 毒性이 劇熱하면서 止痛작용이 양호하여 風濕痺痛에 多用하며, 우백부는 解毒散結 작용이 우수하여 癩癧癰癤 등의 병증에 外用으로 多用한다고 한다.

한약규격집에 수록되어 있는 精製附子是 별명이 加工附子이며, 오두(烏頭) *A. carmichaeli* 또는 기타 동속식물의 뿌리를 가공정제한 것으로 aconitine, mesaconitine, jesaconitine 등을 분해시키어 benzoyl aconine 등으로 독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총알갈로이드(benzoyl aconine으로서) 0.33% 이상을 함유한 가루라고 정하고 있다.

五加皮

五加皮는 祛風濕(強筋骨)藥에 속하며 오갈피나무 *Acanthopanax sessiliflorum* 또는 기타 동속식물(오가과 Araliaceae)의 뿌리, 줄기 및 가지의 껍질로 대한약전에서 규정하고 있다. 補氣藥에 속하는 刺五加인 가시오갈피 *Eleutherococcus senticosus*는 한약규격집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변종으로 왕가시오갈피 var. *koreanus*와 민가시오갈피 for. *inermis*가 있다. 오갈피속 식물 현재 식물명명상의 이명이 *Acanthopanax* 대신 *Eleutherococcus*으로 속명이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

조선약전에 오갈피는 대한약전과 동일한 기원으로 오갈피나무 및 같은속식물의 속껍질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가시오갈피뿌리는 가시오갈피나무 *E. senticosus*, 왕가시오갈피나무 *E. asperatus*의 뿌리를 기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약전에서 五加皮는 細柱五加 *A. gracilistylus*의 根皮를 기원으로 하며, 性味는 辛苦, 溫하며 肝 腎經으로 들어가 祛風濕, 補肝腎, 強筋骨의 效能을 나타낸다. 그리고 刺五加는 *A. senticosus*의 뿌리, 뿌리줄기, 줄기를 기원으로 하며, 性味는 辛 微苦, 溫하며 脾 腎 心經으로 들어가 益氣健脾, 補腎安神的 效能이 있다.

중국에서 五加皮는 南五加皮, 五加皮, 紅五加皮 등의 이명이 있으며, 細柱五加 *A. gracilistylus*와 無梗五加(短梗五加) *A. sessiliflorum*의 근피를 기원으로 한다. 性味는 辛 苦 微甘, 溫하며 肝 腎經으로 들어가 祛風濕, 補肝腎, 強筋骨, 活血脈의 效能을 나타낸다. 細株五加的 주성분은 syringin, eleutheroside

B1 등이고 無梗五加는 sesamin, savinin, acanthosides 등 lignan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다. 刺五加는 *A. senticosus* [*Eleutherococcus senticosus*]의 根, 根莖, 莖葉을 기원으로 하고 eleutheroside A, *ciwujianosides* 등을 함유하며, 性味는 微苦 辛, 溫하며 脾腎心經으로 들어가 補腎強腰, 益氣安神, 活血通絡의 效能이 있다.

한편 香加皮는 五加皮, 北五加皮, 杠柳皮, 臭五加, 山五加皮, 香五加皮 등의 이명이 있으며 박주가리와 Asclepiadaceae 落葉蔓性식물인 杠柳 *Periploca sepium*의 근피를 기원으로 하며, 強心배당체 periplocin(periplocoside G), periploside A 등을 함유한다. 性味는 苦 辛, 微溫, 有毒하며 肝腎心經으로 들어가 祛風濕, 利水消腫, 強心の 效能을 나타내며, 본 품은 유독하므로 오가피 대응으로는 불가하다고 하였다. 오가피(南五加皮)와 향가피(北五加皮)는 이름만 비슷할 뿐이고 외관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가루생약이거나 가공되었을 경우 감별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타 川加皮라 불리는 紅毛五加皮 *A. giraldii*(刺五加皮, 五加皮, 毛五加, 刺五甲) 등 오가피속 생약들이 중국 내에서 다수 유통되고 있다.

국내에서 자생하는 오갈피나무의 동속식물로는 섬오갈피 *Acanthopanax koreanum*[*Eleutherococcus gracilistylus*], 지리산오갈피 *A. chiisanensis*[*E. divaricatus* var. *chiisanensis*], 오가나무 *A. sieboldianum*, 서울오가피 *A. seoulense*, 털오가피 *A. rufinerve*[*E. divaricatus* var. *divaricatus*] 등이 있으나, 약전에서 규정하는 오가피의 동속식물의 범위가 모호하며 각 기원식물에 대한 성분 및 약리효과에 대한 결과가 미흡하므로 뿌리, 줄기, 껍질 등 식물체 부위별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羌活

羌活은 辛溫解表藥에 속하며 대한약전에서 羌活 *Ostericum koreanum*의 뿌리, 중국 羌活(羌活) *Notopterygium incisum* 혹은 寬葉羌活(寬葉羌活) *N. forbesii*(산형과 Umbelliferae)의 뿌리줄기 및 뿌리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자생하는 羌活 *O. koreanum*의 학명은 *Angelica koreana*와 동일하며, 이외에 문헌상 羌活의 학명이 다양하다.

실제 국내에서 羌活이라고 재배하는 식물은 왜천궁 *Angelica genuflexa*이며 羌活 *A. koreana*[=*O. koreanum*]은 신감채 *O. grosseserrata*와 동일하고, *O. praeteritum*은 뫓미나리(뫓미나리)의 개체변이로 뫓미나리 *O. sieboldi*에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선 등, 2000).

조선약전에 羌活리, 이명으로 羌活은 羌活리 *Ostericum praeteritum*[=*O. koreanum*]의 뿌리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 중국약전에서는 羌活 *Notopterygium incisum* 및 寬葉羌活 *N. forbesii*의 뿌리줄기를 기원으로 하며, 性味는 辛 苦, 溫하며 膀胱腎經으로 들어가 散寒, 祛風, 除濕, 止痛의 效能이 있다.

중국에서 羌活의 기원식물은 羌活 *Notopterygium incisum*

및 寬葉羌活 *N. forbesii*[*N. franchetii*]의 根莖 및 根이며, 性味는 辛 苦, 溫하며 膀胱腎經으로 들어가 散表寒, 祛風濕, 利關節, 止痛의 效能이 있다. 주성분으로 isoimperatorin, cnidilin, notopterol, bergapten 등이 있다. 한편, 山水芹茶는 우리나라 羌活에 해당되는 大齒山芹 *Ostericum grosseserratum* [*Angelica grosseserratum*; *A. mongolica*; *A. koreana*]의 뿌리를 기원으로 하며, 이명으로 朝鮮羌活, 粗齒當歸 등이 있다. 함유성분으로 isoimperatorin, oxypeucedanin, imperatorin, angelikoreanol, osthol 등이 있으며, 性味는 辛 微甘, 溫하며 補中健脾, 溫肺止咳의 效能이 있다.

한국과 북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羌活 *O. koreanum*과 중국에서 사용되는 羌活은 다르므로 성분 및 약효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川芎

川芎은 活血化瘀藥에 속하며 대한약전에서 천궁 *Cnidium officinale*(산형과 Umbelliferae)의 뿌리줄기를 기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 성분은 phthalide 성분으로 ligustilide, butylidenephthalide 등이다.

일본약전에서도 같은 기원식물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약전에서는 川芎의 기원식물을 *Ligusticum chuanxiong*으로 정하고 있고, 性味는 辛, 溫하며 肝膽心包經으로 들어가 活血行氣, 祛風止痛의 效能을 나타낸다. 조선약전에서는 궁궁이(천궁)라 하여 궁궁이 *Ligusticum chuanxiong*, 산궁궁이(산천궁) *L. jeholense*의 뿌리줄기를 기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약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재인 고본 *Ligusticum tenuissimum*의 유사식물로 산천궁의 혼입을 금하고 있다.

중국에서 藁本の 기원식물은 藁本 *L. sinense*와 遼藁本 *L. jeholense*[*Cnidium jeholense*]으로 정하고 있으며, 性味가 辛, 溫하며 膀胱經으로 들어가 祛風勝濕, 散寒止痛의 效能을 나타낸다. 성분으로, 藁本은 정유(0.85%) 중에 neocnidilide(25.0%), limonene(14.44%), cnidilide(10.78%), 4-terpineol(8.0%) 등이 함유되어 있고, 遼藁本은 정유(1.3%) 중에 β -selinene(33.32%), 4-terpinyl acetate(13.82%), myristicin(9.05%), ligustilide(6.23%) 등이 함유되어 있다. 우리나라 자생식물 고본 *Ligusticum tenuissimum*[*Angelica tenuissimum*]은 細葉藁本이라 하여 별도의 향으로 구분하였으며, 性味는 辛 苦, 溫하며 疏風除濕, 散寒止痛의 效能을 나타낸다. 이 세가지 식물, 藁本, 遼藁本, 細葉藁本은 한약규격집에서 고본의 기원식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解表藥에 속한다.

중국에서 川芎의 기원식물은 芎藭이라는 이명을 가진 川芎 *Ligusticum chuanxiong*[*L. wallichii*]의 근경이며, 性味는 辛, 溫하며 肝膽心包經으로 들어가 活血祛瘀, 行氣開鬱, 祛風止痛의 效能이 있다. 함유성분으로 chuanxiongzin[tetramethylpyrazine], perlolyrine, ligustilide, wallichilide, 3-butylidenephthalide, neocnidilide, senkyunolide 등이 있다. 동속식물로 東芎

Ligusticum officinale[*Cnidium officinale*]은 東川芎, 日本川芎, 川芎이라 하여 천궁대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중국의 천궁과 일본의 천궁은 기원이 같으며, 일본 천궁 *C. officinale*의 학명을 *L. chuanxiong*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되기도 하였다(Liu et al., 2002)

우리나라에서 *Ligusticum chuanxiong*을 토천궁으로, *Cnidium officinale*를 일천궁으로 하여 재배 및 유통되고 있으나 천궁의 명칭 및 학명에 대한 이견이 있으며, 중국에서 기원식물로 하고 있는 *Ligusticum chuanxiong*을 중국천궁, *Cnidium officinale*을 천궁이라 하여 구별할 수 있으나 두 기원식물에 대한 계속적인 비교, 검토가 요구된다.

防風

海防風은 대한약전에서 별명이 濱防風이며 갯방풍 *Glehnia littoralis*(산형과 Umbelliferae)의 뿌리 및 뿌리줄기를 기원으로 하고 있으며 補陰藥에 속한다.

일본약전에서 浜防風이라는 생약명으로 같은 식물인 갯방풍을 기원식물로 하고 있다. 중국약전에서 北沙參은 해방풍과 같은 식물인 珊瑚菜 *G. littoralis*의 뿌리를 기원으로 하며, 性味는 甘 微苦, 微寒하며 肺 胃經으로 들어가 養陰清肺, 益胃生津의 效能이 있다.

중국문헌에서 北沙參은 *G. littoralis*의 뿌리이며 이명은 珊瑚菜이고 psoralen, bergapten, xanthotoxin, cnidiline 등의 성분을 함유하며, 性味는 甘, 涼하며 歸經 및 效能은 중국약전과 동일하다. 한편 중국약전에 수재되어 있는 南沙參은 輪葉沙參 *Adenophora tetraphylla*과 沙參 *A. stricta*을 기원으로 하고 있으며, 性味가 甘, 微寒하며 肺 胃經으로 들어가 養陰清肺, 化痰, 益氣의 效能을 나타내고 복사삼과 동일하게 補陰藥에 속하나, 해방풍과는 다른 식물이다. 우리나라의 한약규격집에서 沙參은 잔대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또는 기타동속식물(초롱꽃과 Campanulaceae)을 기원으로 하고 있어 중국의 남사삼과도 다르다.

防風은 辛溫解表藥으로 대한약전에서 방풍(防風) *Saposhnikovia divaricata*(산형과 Umbelliferae)의 뿌리 및 뿌리줄기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식물도감에 방풍은 동일한 식물인 *Ledebouriella seseloides*[*Saposhnikovia divaricata*]로서 대용품으로 갯기름나무, 기름나무, 갯방풍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일본약전과 중국약전의 방풍도 같은 식물을 기원으로 하며, 性味는 辛 甘, 溫하며 膀胱 肝 脾經으로 들어가 解表祛風, 勝濕, 止癢의 效能이 있다. 조선약전에서도 동일식물인 *Ledebouriella divaricata*를 기원으로 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방풍은 *Saposhnikovia divaricata*[*Stenocoelium divaricatum*; *Siler divaricatum*; *Ledebouriella seseloides*; *L. divaricata*]의 根을 기원으로 하며, 性味는 辛 甘, 微溫하며 膀胱 肝 脾經으로 들어가 祛風解表, 勝濕止痛, 解癢, 止癢의 效能이 있다. 함유성분으로 ledebouriellol, hamaudol, cimifugin;

bergapten, psoralen; panaxynol; saposchnikovan 등이 있다. 방풍과 명칭이 유사한 근연식물로 川防風(竹節前胡 *Peucedanum dielsianum*), 石防風(*P. terebinthaceum*), 云防風(竹葉西風芹 *Seseli mairei*, 松葉西風芹 *S. delavayi*), 그리고 杏葉防風(杏葉茴芹 *Pimpinella candolleana*) 등이 있다.

植防風은 한약규격집에 갯기름나무 *Peucedanum japonicum*(산형과 Umbelliferae)의 뿌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化痰藥에 속한다. 중국에서의 濱海前胡는 식방풍과 기원이 동일하며 이명으로 防風이라 한다. 함유성분으로 peucedanol, umbelliferone 등이 있고 性味는 辛, 寒, 小毒하며 肺 膀胱經으로 들어가 清熱止咳, 利尿解毒의 效能을 나타낸다. 중국약전과 한약규격집에 규정되어 있는 前胡는 化痰止咳平喘藥으로 紫花前胡(바디나무) *Peucedanum decursivum*[*Angelica decursiva*]와 白花前胡 *P. praeruptorum*를 기원으로 하고, 性味는 苦 辛, 微寒하며 肺經으로 들어가 散風清熱, 降氣化痰의 效能을 가지고 있는데, 식방풍과는 다른 생약이다.

국내 유통되는 방풍류 생약은 방풍 *Saposhnikovia divaricata*을 眞防風, 唐防風으로, 갯기름나무 *Peucedanum japonicum*을 植防風으로, 갯방풍 *Glehnia littoralis*을 元防風으로 부르고 있으며 감별이 가능하다. 방풍, 해방풍, 식방풍 등 3종은 형태적으로 전혀 다른 기원식물을 가지고 있으며 본초학적 분류도 다르므로 유통상 주의를 요하는 생약들이다.

厚朴

厚朴은 芳香化濕藥에 속하며 대한약전에 목련과 Magnoliaceae의 낙엽교목인 일본목련 *Magnolia obovata*, *M. officinalis* 또는 *M. officinalis* var. *biloba*의 樹皮로 규정하고 성분규격은 magnolol 0.8%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보통 국내에서 사용되는 후박은 和厚朴, 일목련, 일본후박이라 불리는 일본목련 *M. obovata*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국내 남부지역 자생종이고 상록교목이며 녹나무과 Lauraceae 식물인 후박나무 *Machilus thunbergii*[*Persea thunbergii*]는 일명 上厚朴, 韓厚朴이라 하여 유통되기도 하지만, 후박의 약리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박나무의 변종으로 왕후박나무 var. *obovata*가 있다. 후박나무는 중국에서 紅楠皮라 하여 紅楠 *M. thunbergii*의 根皮와 樹皮를 기원으로 한다. 紅楠皮의 뿌리에 *N-norarmepavine*, 수피에 licarin A, machilin A, G, nectantrin A, B, acuminatin, isoguaiacin, meso-dihydroguaiaretic acid 등과 葉에 caryophyllene 등 정유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性味는 辛 苦, 溫하며 肝 脾 胃經으로 들어가 溫中順氣, 舒經活血, 消腫止痛의 效能을 가지고 吐瀉不止, 扭挫傷筋, 轉筋, 足腫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일본약전에서 厚朴의 기원식물은 대한약전과 동일하며, 중국약전에서는 厚朴 *Magnolia officinalis* 또는 凹葉厚朴 *Magnolia officinalis* var. *biloba*의 幹皮, 根皮 또는 枝皮를 기원으로 하며, 性味는 苦 辛, 溫하며 脾 胃 肺 大腸經으로 들

어가 燥濕消痰, 下氣除滿의 效能이 있다. 조선약전에서 중국 약전과 동일한 식물을 기원으로 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厚朴은 중국약전과 동일하게 木蓮(木蘭)科 식물인 厚朴 또는 廬山厚朴의 樹皮, 根皮 和 枝皮를 기원으로 하며, 이명으로 厚皮, 重皮, 赤朴, 烈朴, 川朴, 紫油厚朴 등이 있다. 厚朴 *Magnolia officinalis*의 잎의 형태는 長圓狀倒卵形, 先端短尖 혹은 鈍圓이며, 廬山厚朴 *Magnolia officinalis* var. *biloba*[*M. biloba*]은 凹葉厚朴, 溫朴이라고 하는데 잎 2개의 短圓의淺裂片으로 된 先端凹缺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함유성분으로 후박의 경우, 樹皮에는 lignan類 化合物인 magnolol, honokiol, obovatol, 6'-*O*-methylhonokiol, magnaldehyde B, C, magnolignan A-E 등 lignan, 그리고 piperitylmagnolol, randiol, magnolignan F-I, alkaloid 성분인 magnocurarine, salicifoline, 휘발성 정유성분으로 β -eudesmol, cadinol, guaiol, *p*-cymene 등 30종, 기타 sinapicaldehyde, syringaresinol 등을 함유하며 根皮에는 magnolol, honokiol, pinoresinol dimethylether 등이 함유되어 있다. 廬山厚朴의 경우도 후박과 유사하여 樹皮 또는 根皮에 β -eudesmol, magnolol, honokiol 등을 함유하고 있다. 후박의 性味는 苦辛, 溫하며 脾胃大腸經으로 들어가 行氣消積, 燥濕除滿, 降逆平喘의 效能을 나타낸다. 후박 사용시 주의할 점으로, 同屬植物 武當玉蘭 *Magnolia sprengeri*, 望春玉蘭 *M. biondii*, 華木蘭 *M. sinensis*, 龍女花 *M. wilsonii*, 玉蘭 *M. denudata*, 紫玉蘭 *M. liliflora* 등의 樹皮를 과거에 姜朴이라 하여 사용하기도 했으며 앞의 4종은 四川, 湖北, 陝西, 河南 등지에 분포하고 뒤의 2종은 각지에서 재배하는데, 그 성분과 效能이 厚朴과 달라서 현재 대체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同屬植物 山玉蘭 *Magnolia delavayi*과 목련속 桂南木蓮 *Manglietia chingii*, 紅花木蓮 *M. insignis*, 四川木蓮 *M. szexhuanica* 등의 樹皮를 후박으로 속여 사용하기도 했는데 조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중국내 후박과 유사한 식물로 같은 목련과(Magnoliaceae)나 목련속(*Magnolia*) 생약인 辛夷, 木蘭花 등에 해당하는 많은 식물이 있으나 성분과 效能이 후박과 다르거나 품질이 낮은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국내에서 후박은 후박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일본목련을 사용하거나 중국후박을 사용하는 것이 芳香化濕藥으로서 후박의 效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芍藥

芍藥은 補血藥에 속하는 백작약과 淸熱涼血藥에 속하는 적작약으로 구별되는데, 백작과 적작의 기원식물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생약이다. 대한약전 제8개정에서 白芍藥에서 芍藥으로 생약명을 개정하고 작약 *Paeonia lactiflora* 또는 기타 동속근연 식물(작약과 Paeoniaceae)의 뿌리를 기원식물로 규정하고 있다. 성분규격은 paeoniflorin 2.0% 이상으로 정하고, 성상으로 뿌리의 바깥면은 흰색 또는 갈색을 띤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

약규격집 제3개정(1987)에서 적작약(적작)은 적작약 *Paeonia obovata*, *Paeonia albiflora* var. *hortensis* 또는 기타 동속근연 식물(미나리아재비과 Ranunculaceae)의 뿌리로 규정하였으나, 개정판(2002) 한약규격집에서는 적작약을 삭제하였다. 작약이 속하는 과(family)는 작약과 Paeoniaceae인데, 미나리아재비과 Ranunculaceae에서 작약(모란)과를 독립시켜 현재와 같이 작약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약전에서 작약만이 수록되어 있고 그 기원식물도 *P. lactiflora*의 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분규격도 동일하게 paeoniflorin 2.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조선약전에서 메함박꽃뿌리(적작약)는 메함박꽃(작약) *P. albiflora*의 뿌리를 기원으로 하고 있으며, 백작약(가백작약, 산백작약)은 백작약 *P. japonica* var. *pilosa*, 함박꽃 *P. albiflora* var. *trichocarpa*, 산함박꽃 *P. obovata*의 뿌리를 기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약전에서 白芍은 芍藥 *Paeonia lactiflora*의 뿌리를 기원으로 하며 性味는 苦酸, 微寒하며 肝脾經으로 들어가 平肝止痛, 養血調經, 斂陰止汗의 效能이 있으며, 赤芍은 芍藥 *P. lactiflora* 과 川芍 *P. veitchii*의 뿌리를 기원으로 하며 性味는 苦, 微寒하며 肝經으로 들어가 淸熱涼血, 散瘀止痛의 效能이 있다. 이와 같이 중국내 작약의 기원식물은 백작과 적작, 모두 *P. lactiflora*로 규정하고 있으며, 백작은 재배작약 *P. lactiflora*의 뿌리를 거피하고 증진하여 사용하며, 적작은 야생작약인 적작 *P. lactiflora*, 川芍藥 *P. veitchii*의 뿌리를 건조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 성분규격으로 paeoniflorin 함량이 백작은 0.8% 이상, 적작은 1.8% 이상으로 백작과 적작간에 차이를 두고 있다.

백작약과 적작약의 구분은 재배종인지 야생종인지 여부, 껍질의 제거(去皮) 유무, 뿌리표피의 색깔, 또는 花色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현재는 식물 종 및 가공(蒸乾하고 去皮 여부)에 의해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식물분류학적으로 구분은 이와는 다른데, 거피된 根 표면의 색이 보통 淡色인 백작약 계통에는 꽃색이 흰색인 백작약 *P. japonica*, 변종으로 털백작약 var. *pilosa*, 보통 야생종이며 꽃색이 적색인 산작약 *P. obovata*, 변종으로 민산작약 var. *glabra* 등이 있으며, 그리고 거피된 뿌리의 표피가 보통 분홍빛(淡紅色)을 나타내는 적작약 계통으로 보통 재배종인데 꽃색이 백색~적색인 적작약 *P. lactiflora* (*albiflora*)(var. *typica*), 변종으로 호작약 var. *hirta*, 참작약 var. *trichocarpa*, 작약 var. *hortensis* 등이 있다. 작약류 약용 식물은 식물분류학적으로 산작약 *P. obovata*, 백작약 *P. japonica*, 적작약 *P. lactiflora*으로 크게 세가지로 구별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종은 대부분 적작약 *P. lactiflora*이다.

중국문헌에서 白芍(白芍藥)은 芍藥 *P. lactiflora*[*P. albiflora*] 과 毛果芍藥 *P. lactiflora* var. *trichocarpa*[*P. albiflora* var. *trichocarpa*; *P. yui*]의 根을 기원식물로 하며, 性味는 苦酸, 微寒하며 肝脾經으로 들어가 養血和營, 緩急止痛, 斂陰平肝의 效能이 있고 주성분은 paeoniflorin, albiiflorin, oxypaeoniflorin,

benzoylpaconiflorin 등이다. 赤芍은 기원식물로芍藥 *P. lactiflora*[*P. albiflora*], 川芍藥 *P. veitchii*[毛果赤芍, 條赤芍], 草芍藥 *P. obovata*[卵葉芍藥, 山芍藥, 野芍藥], 毛葉草芍藥 *P. obovata* var. *willmottiae*[*P. willmottiae*, 毛葉芍藥], 美麗芍藥 *P. mairei*[*P. oxypetala*; *P. mairei* f. *oxypetala*, 狗頭芍藥, 小山芍藥], 窄葉芍藥 *P. anomala*[*P. anomala* var. *nudicarpa*, 西北草芍藥, 毛果芍藥, 臭牡丹], 塊根芍藥 *P. anomala* var. *intermedia*[*P. intermedia*; *P. hybrida*, 新疆芍藥, 臭牡丹]의 根으로 정하고 있으며, 性味는 苦, 微寒하며 肝脾經으로 들어가 清熱涼血, 活血祛瘀의 效能을 나타낸다. 함유성분은 백작과 유사하며 공통적으로 paeoniflorin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한편 *P. japonica*는 일본작약이라 하여 중국 東北지역에서 추가하여 적작으로 사용하며 초작약과 성상이 비슷하다고 하였다.

작약은 <神農本草經>에서 적백구분이 없다가 陶弘景의 <本草經集注>에서 백작과 적작으로 문헌상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예부터 작약은 '根曝乾爲赤芍 刮去皮 蒸乾爲白芍藥'이라 하여 종류를 불문하고 원형대로 말린 것을 적작약, 근피를 제거한 것을 백작약으로 사용해 왔다.

국내에서 기원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백작, 적작은 수치고정의 차이로 구별하면서 기원에 대한 정리가 되었으나, 본초학적으로 백작과 적작은 다른 약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P. lactiflora* 이외에 기원식물도 다르므로 성분과 약효에 대한 비교 검토가 있어야 한다. 또한 성분규격에서 일본과 한국은 백작과 적작, 모두 동일하게 paeoniflorin 2.0% 이상으로 규정하였는데, paeoniflorin은 수용성 성분이며 뿌리표피에 많이 축적하고 있는 점과 거피하는 수치고정을 고려해서 성분규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麥門冬

麥門冬은 補陰藥에 속하며 맥문동 *Liriope platyphylla* 또는 소엽맥문동 *Ophiopogon japonicus*(백합과 Liliaceae)의 뿌리의 팽대부(膨大部)를 기원으로 대한약전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맥문동속 *Liriope* 식물에는 맥문동 *L. platyphylla*와 개맥문동 *L. spicata*, 그리고 맥문아재비속 *Ophiopogon* 식물에는 소엽맥문동 *O. japonicus*와 맥문아재비 *O. jaburan*가 있는데, 주로 재배되고 있는 종은 *Liriope platyphylla*이다. 원색한국식물도감에는 *L. platyphylla*는 *L. muscari*와 *L. graminifolia*와 같은 종으로 기록하였으며 *L. spicata*는 좁맥문동 *L. koreana*과 같은 종으로 해서 수재하고 있었다.

조선약전에서도 동일한 식물인 맥문동과 좁은잎맥문동의 덩이뿌리를 기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약전에는 山麥冬과 麥冬이 수재되어 있는데, 山麥冬은 湖北麥冬 *Liriope spicata* var. *prolifera* 혹은 短葶山麥冬 *L. muscari*의 塊根을 기원으로 하고, 性味는 甘 微苦, 微寒하며 心 肺 胃經으로 들어가 養陰生津, 潤肺清心の 效能을 나타낸다. 麥冬은 *Ophiopogon*

*japonicus*의 괴경을 기원으로 하며 性味와 效能은 山麥冬과 동일하다. 일본약전에서도 맥문동은 *Ophiopogon japonicus*의 根의 膨大部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

중국 문헌에서 맥문동은 土麥冬과 麥門冬, 두가지 생약을 기록하고 있는데, 土麥冬은 이명이 맥문동이며 山麥冬 *Liriope spicata*[*Convallaria spicata*; *Ophiopogon spicatus*, 大葉麥門冬]과 潤葉山麥冬 *L. platyphylla*의 괴근을 기원으로 한다. 山麥冬의 함유성분은 spicatoside A, B, ophiopogonin B 등이며, 潤葉山麥冬의 함유성분은 ruscogenin 배당체 등이며, 性味는 甘 微苦, 微寒하며 養陰生津의 效能이 있다. 동속근연식물로 토맥동의 대응으로 사용하는 것은 禾葉山麥冬 *L. graminifolia*, 矮小山麥冬 *L. minor*, 甘肅麥冬 *L. kansuensis* 등이 있으며 중국 내 민간에서 맥문동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麥門冬은 麥冬 *Ophiopogon japonicus*과 沿階草 *O. bodinieri*의 괴근을 기원으로 하며, 함유성분은 ruscogenin의 배당체인 ophiopogonin B, D 등이다. 性味는 甘 微苦, 微寒하며 肺 胃 心經으로 들어가 滋陰潤肺, 益胃生津, 清心除煩의 效能이 있다. 동속근연식물로 湖北麥冬 *L. spicata* var. *prolifera*를 재배하여 대응하기도 한다.

중국에서 맥문동을 구분하여 약전에 수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북한은 동일한 생약으로 두가지 식물을 포함시키고 있어, *Liriope*속과 *Ophiopogon*속 식물의 성분 및 약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山椒

山椒는 溫裏藥에 속하며 대한약전에서 초피나무 *Zanthoxylum piperitum*[*Fagara mantchurica*] 또는 기타 동속식물의 과피로서 씨를 뿜 수 있는대로 제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피나무는 운향(산초)과 Rutaceae 낙엽관목으로 좁피나무라고도 하며, 川椒, 山椒라는 생약명을 가지고 있다. 과피의 주성분인 함질소 성분 α -, β -sanshool(sanshool I, II)은 국소마비성 신미성 물질이며 살충 및 어독작용이 있다. 과실의 정유성분에는 β -phellandrene, 1,8-cineole, limonene, citronellal, myrcene, isopulegol 등이 있다.

한편 초피나무와는 다른 동속식물인 산초나무 *Z. schinifolium*가 있는데 분지나무라고도 하며 흔하게 산에서 볼 수 있는 종이다. 보통 종자 기름을 이용하고 향이 초피나무의 과피보다 적으며, 초피나무의 가시가 대생하는 것과는 달리 가시가 호생하는 형태적 차이가 있다.

산초나무(*Z. schinifolium*)와 초피나무(*Z. piperitum*) 이외에 기타 동속식물이 대한식물도감에 수록되어 있는데, 왕초피(*Z. coreanum*), 털초피나무(*Z. piperitum* var. *pubescens*), 민산초(*Z. schinifolium* var. *inermis*), 전주산초(*Z. schinifolium* var. *subinermis*), 좁산초(*Z. schinifolium* var. *microphyllum*), 머귀나무(*Z. ailanthoides*), 민머귀나무(*Z. ailanthoides* var. *inermis*), 좁머귀나무(*Z. fauriei*), 개산초(*Z. planispinum*) 등이 있다. 이

와 같은 동속식물들이 산초의 대용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조선약전에서 조피열매껍질(산초)은 조피나무(산초나무, 초피나무) *Z. piperitum* 및 같은속식물의 열매껍질로 동일한 기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약전에서 山椒는 *Z. piperitum*의 성숙한 과피로서 씨를 뿜 수 있는대로 제거한 것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한국, 북한, 일본은 산초의 기원을 동일한 식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약전에서 花椒라하여 青椒 *Z. schinifolium* 혹은 화초 *Z. bungeanum*의 성숙 과피를 기원으로 하며, 性味는 辛, 溫하며 脾胃腎經으로 들어가 溫中止痛, 殺虫止痒의 效能이 있다. 청초는 우리나라의 산초나무 *Z. schinifolium*와 동일 종의 식물이다.

중국에서 花椒는 蜀椒, 秦椒 등의 이명을 가지고 있으며, 花椒 *Zanthoxylum bungeanum*[川椒, 紅椒, 大紅袍]와 青椒 *Z. schinifolium*[川椒, 香花椒, 青花椒, 散血膽, 刺搜山虎, 香椒子, 天椒, 崖椒]의 과피를 기원으로 하며, 性味는 辛, 溫, 小毒하며 脾胃腎經으로 들어가 溫中止痛, 除濕止瀉, 殺虫止痒의 效能이 있다. 花椒는 limonene(25.10%), 1,8-cineole(21.79%), myrcene(11.99%) 등의 정유성분이, 青椒는 estragole(75.73%) 등의 정유성분이 과피에 함유되어 있는데, 화초와 청초의 주성분은 휘발성 정유성분이지만 성분조성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椒目이라는 생약은 花椒의 종자를 기원으로 하며, 苦辛, 溫, 小毒하고 脾胃膀胱으로 들어가 利水消腫, 祛痰平喘의 效能을 가지고 있다. 기타 동속(*Zanthoxylum*) 식물로 花椒라는 단어가 들어간 생약명을 가진 약제가 많으나 이용부위가 과피가 아닌 과실, 뿌리, 엽 등이며 效能도 다른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 보통 산초나무는 흔하게 자생하는 식물로서 열매의 종자기름이나 과피를 민간약 또는 향신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산초나무와 초피나무는 향 및 정유성분이 다르므로 이 두 식물과 국내 자생하는 다른 동속식물의 성분 및 약리적 검토를 통해 적합한 산초의 기원식물이나 근연식물을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牛膝

牛膝은 活血化癥藥에 속하며 대한약전에 비름과 *Amaranthaceae* 식물인 쇠무릎 *Achyranthes japonica* 또는 우슬(牛膝) *Achyranthes bidentata*의 뿌리를 기원으로 정하고 있다. 대한약전 제8개정에서는 일본지역에서 자생하는 *A. fauriei*를 삭제하고 국내에서 자생하며 주로 우슬이라 생산하여 이용하는 쇠무릎 *Achyranthes japonica*을 추가하여 수재하고 있다.

조선약전에서는 쇠무릎뿌리(우슬)라 하여 쇠무릎풀 *A. japonica*만을 기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약전에서 우슬은 *Achyranthes fauriei* 또는 *A. bidentata*의 뿌리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 중국약전은 우슬과 천우슬이 수재하고 있는데, 牛膝은 *A. bidentata*의 뿌리만을 기원으로 하며, 우슬의 性味는 苦

酸, 平하며 肝腎經으로 들어가 補肝腎, 強筋骨, 逐瘀通經, 引血下行的 效能을 나타낸다. 川牛膝은 *Cyathula officinalis*의 뿌리를 기원으로 하며, 性味는 甘微苦, 平하며 肝腎經으로 들어가 逐瘀通經, 通利關節, 利尿通淋의 效能을 가지고 있다. 중국내에서 품질이 우수하다고 하는 懷慶產 우슬인 懷牛膝의 뿌리 형태는 곧고 측근이 거의 없이 주근만 있어, 뿌리가 짧고 가늘며 측근이 많은 쇠무릎과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 규정하는 회우슬 *Achyranthes bidentata* 이외에 각국에 자생하는 식물, 즉 한국과 북한은 쇠무릎 *A. japonica*, 일본은 *A. fauriei*를 우슬의 기원식물로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다.

중국문헌에서 牛膝, 土牛膝, 云牛膝 등을 볼 수 있는데, 牛膝은 이명으로 懷牛膝 등이며 *Achyranthes bidentata*의 根을 기원으로 하고, 性味는 苦酸, 平하며 肝腎經으로 들어가 補肝腎, 強筋骨, 活血通經, 引血(火)下行, 利尿通淋의 效能을 나타낸다. 함유성분으로 triterpenoidal saponin(*Achyranthes saponins*; oleanolic acid α -L-rhamnopyranosyl- β -D-galactopyranoside 등), 다당류, 아미노산, 곤충탈피 steroid 성분인 ecdysterone(β -ecdysone), inokosterone 등이 있다. 土牛膝은 牛膝(야생종) *A. bidentata*, 柳葉牛膝 *A. longifolia*[*A. bidentata* var. *longifolia*], 粗毛牛膝 *A. aspera*(이 식물의 전초는 생약명이 倒扣草임), 鈍葉土牛膝 *A. aspera* var. *indica*의 根 또는 根莖을 기원으로 하고 있으며, 性味는 甘微苦微酸, 寒하며 肝腎經으로 들어가 活血祛瘀, 瀉火害毒, 利尿通淋의 效能을 나타낸다. 함유성분으로 柳葉牛膝의 전초에 ecdysterone, inokosterone 등이, 粗毛牛膝의 종자, 뿌리, 경엽에 ecdysterone 등이(종자에 가장 많음), 鈍葉土牛膝의 根에 ecdysterone 등이 있다. 근연종 식물로 日本牛膝 *A. japonica*, 鈍葉牛膝 *A. aspera* var. *indica*, 紅褐粗毛牛膝 *A. aspera* var. *rubo-fusca* 등이 있다. 云牛膝은 紅褐粗毛牛膝 *A. aspera* var. *rubo-fusca*[*A. rubo-fusca*]의 根 또는 根莖으로 ecdysterone, inokosterone 등을 함유하며, 性味는 苦, 平하며 活血通絡, 利尿通淋, 清熱解毒의 效能이 있다.

우슬의 混雜品으로 味牛膝은 쥐꼬리망초과 *Acanthaceae* 식물인 腺毛馬藍 *Strobilanthes forrestii*의 근 또는 근경으로 우슬대용으로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기도 하며, 白牛膝은 석죽과 *Caryophyllaceae*에 속하는 狗筋蔓 *Cucubalus baccifer*의 뿌리로 云南지역에서 우슬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같은 비름과 식물이며 *Cyathula*속으로 우슬과 유사한 생약들로 麻牛膝, 川牛膝, 杯莧 등이 있으며 우슬과 유사한 phytoecdysone 성분(ecdysterone 등)을 함유하고 있다. 麻牛膝은 頭花杯莧 *C. capitata*[頭花蔥草, 頭序杯莧]의 根을 기원으로 하며, 性味는 微苦, 平하며 祛風濕, 逐瘀血的 效能이 있다. 함유성분은 cyasterone, capitasterone, amarasterone A, B, sengosterone 등 곤충탈피 steroid 성분이 있다. 川牛膝은 異名으로 牛膝, 牯牛膝 등이며 천우슬 *C. officinalis*[*C. capitata*; *C. tomentosa*, 毛藥, 紅毛藥]의 根을 기원으로 하며 β -ecdysterone을 함유하고, 性味는 甘微苦, 平하며 肝腎經으로

들어가는 活血祛瘀, 祛風利濕의 效能을 나타낸다. 천우슬과 同科 植物인 마우슬 *C. capitata*은 중국 四川西昌과 雲南의 일부지역에서 천우슬이라 혼칭하여 사용하였다고 한다. 杯莖은 *C. prostrata*[*Achyranthes prostrata*, 平臥杯莖]의 지상부를 기원으로 하며 전초에 ecdysterone을 함유하고 있다. 性味는 苦, 涼하며 清熱解毒, 活血散瘀의 效能이 있다. 이러한 식물들은 우슬과 비슷한 점이 있으나 대용 가능여부 또는 품질을 비교하여 구별해서 사용하여야 活血化瘀藥의 우슬로서의 效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防己

防己는 祛風濕藥에 속하며 대한약전에 방기 *Sinomenium acutum*(새모래덩굴과 Menispermaceae)의 덩굴성줄기 및 뿌리줄기를 기원으로 정하고 있다.

일본약전의 방기는 대한약전과 동일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 중국약전에는 防己와 靑風藤이 수재되어 있는데, 防己는 粉防己 *Stephania tetrandra*의 뿌리를 기원으로 하며, 性味는 苦, 寒하며 膀胱 肺經로 들어가 利水消腫, 祛風止痛의 效能이 있다. 靑風藤은 靑藤 *Sinomenium acutum* 또는 毛靑藤 *S. acutum* var. *cinereum*의 藤莖을 기원으로 하며, 性味는 苦 辛, 平하며 肝 脾經에 들어가 祛風濕, 通經絡, 利小便의 效能이 있다.

방기의 기원식물은 한국과 중국이 다른데 중국 방기인 분방기는 국내에 자생하지 않으며 한방기로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국내 자생하며 중국에서 靑藤이라 부르는 防己 *Sinomenium acutum*와 수입되는 粉防己 *Stephania tetrandra*의 형태적 차이, 그리고 본초학적으로 祛風濕藥으로서 效能을 파악하기 위한 防己의 성분 및 약리효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방기류는 문헌상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靑藤, 防己, 木防己이다. 靑藤은 이명으로 靑風藤, 瀕防己 등으로도 불리며 청등 *Sinomenium acutum*[*Menispermum acutum*]과 毛靑藤 *S. acutum* var. *cinereum*의 藤本을 기원으로 하고 줄기와 뿌리에 sinomenine, sinoacutine, acutumine 등 alkaloid 성분을 함유한다. 性味는 苦 辛, 平하며 肝 脾經으로 들어가 祛風通絡, 除濕止痛의 效能이 있다. 防己는 이명으로 漢防己라 하며 粉防己 *Stephania tetrandra*의 괴근을 기원으로 하고, 괴근에 tetrandrine(hanfanchin A=fanchinin), fangchinoline 등을 함유한다. 性味는 苦 辛, 寒하며 膀胱 肺 脾經으로 들어가 利水消腫, 祛風止痛의 效能을 나타낸다. 木防己는 목방기 *Cocculus orbiculatus*[*C. trilobus*; *C. sarmentosus*, 靑風藤]과 毛木防己 *C. orbiculatus* var. *mollis*[*C. lenissimus*]의 뿌리를 기원으로 하며, trilobine, coclobine 등을 함유하고 있다. 性味는 苦 辛, 寒하며 膀胱 腎 脾經으로 들어가 祛風除濕, 通絡活絡, 解毒消腫의 效能을 나타낸다. 목방기의 莖을 小靑藤이라 하며 trilobine을 함유하고, 性味가 苦, 平하며 祛風除濕, 調氣止痛, 利水消腫의 效能을 나타낸다.

한약규격집에 덩덩이덩굴 *Cocculus trilobus*(새모래덩굴과 Menispermaceae)을 木防己의 기원으로 하고 있다. 조선약전에 덩덩이덩굴뿌리(목방기)도 기원이 동일하다.

한편, 중국약전에 수재되어 있는 廣防己는 *Aristolochia fangchi*[防己馬兜鈴]의 뿌리를 기원으로 하며, 性味는 苦 辛, 寒하며 膀胱 肺經으로 들어가 祛風止痛, 清熱利水の 效能을 나타낸다. 광방기는 이명으로 防己, 木防己 등이 있고 광방기란 명칭은 산지가 중국 廣東과 廣西지역이라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함유성분은 aristolochic acid I, aristoloactam, allantoin, magnoflorine 등이다. 예부터 중국에서 방기의 기원 식물로 분방기와 광방기, 두가지를 이용하여 왔으며, 방기의 대용품으로 중국내 생산하여 유통되거나 외국에 수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광방기는 중국 약전에서 방기와는 다르게 분리되어 있으며, 쥐방울과 Aristolochiaceae 식물에 보통 함유되어 있는 aristolochic acid 성분이 신장독성 및 발암성을 유발한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어 여러나라에서 광방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허 등, 2000), 방기 대용품으로 사용되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광방기와 같은 쥐방울과 Aristolochiaceae 식물로 중국약전에 수재되어 있는 생약으로 馬兜鈴, 靑木香, 天仙藤이 있는데, 馬兜鈴은 北馬兜鈴根 *A. contorta* 혹은 馬兜鈴 *A. debilis*의 과실을, 靑木香은 북마두령과 마두령의 뿌리를, 天仙藤은 북마두령과 마두령의 지상부(경엽)를 기원으로 한다. 함유성분으로 마두령은 aristolochic acid A, C, D 등을, 청목향에서 마두령은 aristolochic acid A, B, C 등을, 북마두령은 aristolochic acid A, E, allantoin 등을, 천선등은 aristolochic acid D 등이 있는데, 광방기와 함유성분(aristolochic acid)이 유사한 점은 있으나 광방기와는 다른 생약들이다. 그리고 漢中防己는 이명이 防己, 解禽, 木防己 등이며, 異葉馬兜鈴 *A. kaempferi* f. *heterophylla*[*A. heterophylla*]의 뿌리를 기원으로 하며, β -sitosterol, allantoin, aristolochic acid, magnoflorine 등을 함유한다. 性味는 苦 辛, 寒하며 膀胱 腎 脾經으로 들어가 祛風止痛, 清熱利水の 效能을 나타낸다. 이 漢中防己 [漢防己]는 본초분류상 祛風濕藥인 防己에 있어서 古代에 粉防己를 사용하기 이전에 방기의 일종으로 漢防己라 하여 중국 漢中지역에서 생산되어 사용되었던 생약이다.

방기는 木防己와 漢防己 [粉防己]로 크게 구분되고 利水祛風하는 작용은 비슷한데, 한방기는 祛濕利水에 편중되어 있어서 下焦濕熱, 下半身水腫, 濕脚氣 등을 치료하고, 목방기는 祛風通絡, 止痛에 편중되어 있어 上半身水腫과 風濕疼痛의 치료에 사용한다고 한다.

黃精

黃精은 補陰藥에 속하며 기원식물은 대한약전에 *Polygonatum sibiricum*, *P. falcatum* 또는 *P. kingianum*(백합과 Liliaceae)의 뿌리줄기를 그대로 또는 외피를 벗겨어 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식물도감에 *P. falcatum*을 진황정이라 수록되어 있고 근연종으로 충충둥굴레 *P. stenophyllum*가 있으며, *P. sibiricum*을 제7개정에서 충충갈고리둥굴레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중국약전에서 黃精은 滇黃精 *P. kingianum*, 黃精 *P. sibiricum*, 多花黃精 *P. cyrtonea*의 근경을 기원식물로 하며, 性味는 甘, 平하며 脾 肺 腎經으로 들어가 補氣養陰, 健脾, 潤肺, 益腎의 效能이 있다. 조선약전에서는 죽대둥굴레(황정)라 하여 *Polygonatum sibiricum*만을 기원으로 하며, 유사약재로 둥굴레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의 혼입을 금하고 있다.

중국 문헌상 黃精의 기원식물은 중국약전과 동일하게 黃精 *P. sibiricum*[*P. chinense*], 多花黃精 *P. cyrtonea*[*P. multiflorum*; *P. multiflorum* var. *longifolium*; *P. brachynema*], 滇黃精 *P. kingianum*[*P. agglutinatum*]의 근경으로 하고 있으며 steroidal saponin인 sibiricoside A, B 등을 함유하고 있다. 性味는 甘, 平하며 脾 肺 腎經으로 들어가 養陰潤肺, 補脾益氣, 滋腎填精의 效能을 가지고 있다. 황정의 동속식물이 중국에 30여종 분포하고 있는데, 황정의 기원식물 3종이외에 근경의 크기나 모양이 유사하고 맛이 단 것은 황정 대응으로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근연식물에는 輪葉黃精 *P. verticillatum*, 卷葉黃精 *P. cirrhifolium*, 互卷黃精 *P. alternicirrhosum*, 熱河黃精 *P. macropodium*, 長梗黃精 *P. filipes*, 對葉黃精 *P. cathartii* 등인데, 이중 輪葉黃精과 卷葉黃精의 苦味품종은 大黃用으로 불가하다고 한다.

萎蕤는 補陰藥에 속하며 한약규격집에 별명이 玉竹이며 둥굴레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또는 기타 동속근연식물의 뿌리줄기를 기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연종으로 왕둥굴레 *P. robustum*가 있다.

중국약전에서 玉竹은 *P. odoratum*의 근경을 기원으로 하며, 性味는 甘, 微寒하며 肺 胃經으로 들어가 養陰潤燥, 生津止渴의 效能을 나타낸다. 조선약전에 둥굴레(옥죽)라 하여 동일하게 기원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문헌에서 玉竹은 女萎, 委萎, 萎蕤 등의 이명을 가지며 *P. odoratum*[*P. officinalis*; *P. odoratum* var. *pluriflorum*]의 근경을 기원으로 하고, 점액질 성분인 odoratan, polygonatum-fructans 등 다당류, polyspirostanol, polyspirostanoside, polyfuroside 등을 함유한다. 性味는 甘, 平하며 肺 胃經으로 들어가 養陰潤肺, 養胃生津의 效能을 나타낸다. 옥죽의 동속 근연식물로 毛筒玉竹 *P. inflatum*(통둥굴레), 二苞玉竹 *P. involucreatum*(용둥굴레), 新疆玉竹 *P. roseum*, 小玉竹 *P. humile*(각시둥굴레), 康定玉竹 *P. pratii* 등이 있어 옥죽 대응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같은 백합과 Liliceae 식물인 深裂竹根七 *Disporopsis pernyi*, 散斑竹根七 *D. aspera*, 鹿葯 *Similacina japonica* 등 3종은 옥죽과 效能이 같지 않아 옥죽의 대응이나 혼입을 금한다고 하였다.

황정과 위유(옥죽)는 같은 백합과 식물이며, 근경모양에서 위유는 곧게 뻗고 長圓柱形이나 황정은 결절괴상이며 마디간격이 넓으며, 뿌리크기는 황정이 위유보다 더 큰 차이가 있다. 황정과 옥죽의 效能은 滋養強壯劑로서 서로 같으나 옥죽이 근경에 다당류인 점액질이 있어 止血止瀉의 효과가 더 있으며, 위유는 補陰生津, 황정은 補陰補氣하여 둘 다 補陰에 사용하나 위유는 補陰에만 能하고 황정은 補陰뿐만 아니라 補氣에도 能하다고 한다.

桂皮

桂皮는 주로 향신료로 사용되는 실론계피 *Cinnamomum zeylanicum*(*C. verum*; 스리랑카산계피)와 약용을 사용되는 계피 *C. cassia*,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기타 월남산계피 *C. obtusifolium*, 태국산계피 *C. iners*, 일본산계피 *C. sieboldi* 등이 있다. 상록교목인 육계 *C. cassia*의 수피를 건조 후 계피라 하며, 가공에 따라 桂通(桂爾通), 油桂通, 官桂, 筒桂 등, 企邊桂(淸化桂), 板桂, 桂碎 등이 있다. 계피는 枝皮, 즉 가지의 껍질이며, 육계는 幹皮를 剝離하고 外面의 粗皮와 枹層을 다소 除去한 것이며, 계심은 肉桂의 外層 苦燥性이 있는 부분을 剝削하고 內面의 薄皮를 제거한 中心의 甘潤한 부분을 取한 것이다. 그리고 계지는 肉桂의 枝條로 가는 가지를 말하며 傷寒論에 기재된 계지는 육계의 枝皮를 뜻하지만 보통 가는 가지를 사용한다고 한다.

계피는 溫裏藥에 속하며 대한약전에 육계(肉桂) *Cinnamomum cassia* 또는 기타 동속근연식물(녹나무과 Lauraceae)의 수피 또는 주피를 다소 제거한 수피로 그 기원을 정하고 있으며, 성분규격으로 cinnamic acid 0.03%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함유성분은 정유 cinnamon oil 중 cinnamic aldehyde (cinnamaldehyde), cinnamic acid, cinnamyl acetate 등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으며 계피의 약리효과는 주로 cinnamic aldehyde 성분에 기인한다.

조선약전에는 동일 기원식물로 하는 계지와 계피가 수재되어 있다. 일본약전의 桂皮는 *Cinnamomum cassia*의 수피 또는 주피의 일부를 제거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중국약전에는 육계와 계지가 수재되어 있는데, 肉桂는 *Cinnamomum cassia*의 樹皮를 기원으로 하며, 性味는 辛 甘, 大熱하며 腎 脾 心 肝經으로 들어가 補火助陽, 引火歸源, 散寒止痛, 活血通經의 效能이 있다. 桂枝는 육계 *C. cassia*의 어린가지(嫩枝)를 기원으로 하며, 性味는 辛 甘, 溫하며 脾 腎 膀胱經으로 들어가서 發汗解肌, 溫通經脈, 助陽化氣, 平沖降氣의 效能이 있다.

한약규격집에 부위별로 다른 생약인 肉桂, 桂心, 桂枝가 수재되어 있는데, 肉桂는 육계(肉桂) *Cinnamomum cassia*의 나무껍질(樹幹皮)로 溫裏藥에 속하며, 桂枝는 육계(肉桂) *C. cassia* 및 기타 동속근연식물의 어린 가지로 辛溫解表藥에 속하며, 그리고 桂心은 육계(肉桂) *C. cassia* 또는 기타 동속근연식물의 幹皮에서 주피와 내피의 얇은 층을 벗겨어 낸 것으로

로 溫裏藥에 속한다. 역대 본초서 및 부위별 cinnamaldehyde 성분 분포를 근거로 계피류 생약인 육계, 계지, 계심, 계피 모두 코르크층과 안쪽의 껍질을 벗겨 계심만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각 국의 약전에 수재되어 있는 계피류 생약을 보면, 중국은 육계와 계지, 북한은 계피와 계지, 일본은 계피, 그리고 한국은 대한약전에 계피, 한약규격집에 육계, 계심, 계지가 수재되어 있어 나라마다 다르게 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 일본, 북한 약전에서 계피(육계)는 모두 *C. cassia* 1종만을 기원으로 하고 기타 동속근연식물은 품질이 낮다고 하여 포함하지 않거나 삭제하였는데, 한국은 포함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 이는 약전에서 동속근연식물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실제 유통되는 약제들을 파악하고 약제의 품질을 평가하여야 동효 및 동질약제의 범위가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문헌상 肉桂, 桂枝, 桂皮로 구분하고 있는데, 肉桂는 육계 *C. cassia*[*Laurus cinnamomum*; *L. cassia*]과 大葉淸化桂 *C. cassia* var. *macrophyllum*의 줄기껍질이나 가지껍질을 기원으로 하고, 性味는 辛 甘, 熱하며 腎 脾 心 肝經으로 들어가 補火助陽, 引火歸源, 散寒止痛, 溫經通脈의 效能이 있다. 정유(1.98-2.06%) 중에 phenylpropanoid 성분인 cinnamaldehyde 52.92-61.20%를 함유하고 있다. 桂枝는 육계 *C. cassia*의 嫩枝(어린 가지)로서 辛 甘, 溫하며 膀胱 心 肺經으로 들어가 散寒解表, 溫通經脈, 通陽化氣의 效能이 있다. 정유(0.69%) 중에 cinnamaldehyde 64.75%를 함유하고 있다. 桂皮는 天竺桂 *C. japonicum*[*C. pedunculatum*; *C. chekiangense*], 陰香 *C. burmanni*, 川桂 *C. wilsonii*[*C. wilsonii* var. *multiflorum*]의 樹皮로서, 性味는 辛 甘, 溫하며 脾 胃 肝 腎經에 들어가 溫脾胃, 暖肝腎, 祛寒止痛, 散瘀消腫의 效能이 있다. 天竺桂 수피에 정유성분 phellandrene, eugenol, methyleugenol 등이, 川桂 수피에 정유성분 eugenol, 1,8-cineole, cinnamaldehyde 등이 함유되어 있다. 계피는 육계와 계지의 기원식물과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의 계피와는 다르므로 혼동의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天竺桂 *C. japonicum*는 우리나라의 생달나무와 동일하며, 대한식물도감에 수재되어 있는 국내에 자생하는 녹나무속 *Cinnamomum* 식물에는 생달나무 이외에 녹나무 *C. camphora*와 육계나무 *C. loureirii*가 있는데 육계나무의 근피는 계피의 대용품 또는 과자의 향료로 사용한다고 한다.

육계와 계지는 모두 溫營血, 助氣化, 散寒凝의 작용이 있는데, 육계는 溫裏祛寒하고 下焦에 들어가서 補腎陽에 能하며, 계지는 發表散寒에 能하여 上行을 조장해서 通經脈의 效能을 갖는다고 한다.

보통 중국에서 계피는 향신료로, 육계는 약용으로 쓰일 때 각 명칭을 사용하는데, 육계와 계피의 구분이 모호하며 계심과 계피의 效能 차이도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다. 계피에 대한 분명한 기원식물의 설정을 위해 문헌고찰과 함께 육계의 부위별, 년생별 성분 및 약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桑寄生

桑寄生은 祛風濕藥에 속하며 별명은 상상기생(桑上寄生), 광기생(廣寄生)이며, 그 기원은 겨우살이과(Loranthaceae) 상록기생 소관목인 뽕나무겨우살이 *Loranthus parasiticus* 또는 겨우살이(槲寄生) *Viscum album* var. *coloratum*의 잎, 줄기, 가지로 한약규격집에서 정하고 있으며 avicularin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겨우살이는 꼭기생인 *Viscum album* var. *coloratum*이며 기주식물은 참나무, 팽나무 등 다양하다. 기타 국내에서 자생하는 겨우살이과 식물은 4종인데 겨우살이 이외에 동백나무겨우살이 *Korthalsella japonica*, 꼬리겨우살이 *Hyphear tanakae*[*Loranthus tanakae*], 참나무겨우살이 *L. jadoriki*[*Taxillus yadoriki*, 毛葉桑寄生], 그리고 겨우살이 변종인 붉은겨우살이 *V. album* for. *rubro-aurantiacum*(紅果槲寄生) 등이 있으며, 유럽산 겨우살이는 *Viscum album*(白果槲寄生)의 학명을 갖고 있다.

조선약전에서 겨우사리[기생목]는 겨우사리 *Viscum coloratum*의 잎이 달린 가지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 중국약전에는 상기생과 꼭기생만이 수재되어 있는데, 桑寄生은 *Taxillus chinensis*의 葉莖枝를 기원으로 하고 性味는 苦 甘, 平하며 肝 腎經으로 들어가 補肝腎, 強筋骨, 祛風濕, 安胎의 效能을 가지고 있다. 桑寄生은 *Viscum coloratum*의 葉莖枝를 기원으로 하고 性味는 苦, 平하며 歸經과 效能은 상기생과 동일하다.

중국문헌에서 桑寄生은 *Scurrula*[*Loranthus*, *Taxillus*], *Viscum*속 식물들을 포함하는데, 상기생의 기원식물은 桑寄生 *Taxillus chinensis*[*Loranthus chinensis*], 四川寄生 *T. sutchuenensis*[*Loranthus sutchuenensis*], 紅花寄生 *Scurrula parasitica*[*Loranthus scurrula*, *L. parasiticus*], 毛葉鈍果寄生 *T. nigrans*[*Loranthus nigrans*]으로 정하고 있다. 함유성분은 flavonoid로서 quercetin, quercitrin, avicularin, catechol 등을 함유하며, 性味는 苦 甘, 平하고 肝 腎經으로 들어가 補肝腎, 強筋骨, 祛風濕, 安胎의 效能을 나타낸다. 槲寄生은 우리나라 겨우살이와 같은데, *Viscum coloratum*[*Viscum album* var. *coloratum*]을 기원으로 하며 性味와 效能은 상기생과 동일하다. 함유성분으로는 flavonoid로서 rhamnazin, isorhamnetin 배당체, viscumneoside I-VII 등, triterpenoid로서 β -amyranol, β -amyrandiol, lupeol 등과 기타 배당체로서 syringin, liriodendrin 등을 함유하고 있다. 그리고 栗寄生은 우리나라의 동백나무겨우살이와 같은데 이명은 楡寄生 등이며 *Korthalsella japonica*[*Viscum japonicum*; *Pseudixis japonicum*]을 기원식물로 하며, 性味는 苦 甘, 微溫하고 肝 腎經으로 들어가 祛風濕, 補肝腎, 行氣活血, 止痛의 效能을 나타낸다.

중국내에 기타 겨우살이과 동속 및 근연식물이 기주에 따라 많은 종류가 있으나, 중국약전에 수재된 것은 상기생(*Loranthi Ramulus*)과 꼭기생(*Visci Herba*) 뿐이므로 상기생과 유사생약들에 대한 감별 및 품질평가가 필요하다.

浙貝母

浙貝母는 化痰止咳平喘藥에 속하며 절패모(浙貝母) *Fritillaria thunbergii*(백합과 Liliaceae)의 비늘줄기(鱗莖)를 기원식물로 대한약전에 규정되어 있으며, 크고 심아(芯芽)를 제거한 것을 대패(大貝)라 부르며, 작고 심아를 제거하지 않은 것을 주패(珠貝)라 부르며, 심아를 제거하고 두텁게 쪼갠 것을 浙貝片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함유 주성분은 alkaloid 성분으로 peimine(verticine), peiminine(verticinone) 등이 있다.

川貝母는 한약규격집에 수재되어 있는데, 川貝母 *F. cirrhosa*, 暗紫貝母 *F. unibracteata*, 甘肅貝母 *F. przewalskii*, 또는 梭砂貝母 *F. delavayisa*(백합과 Liliaceae)의 비늘줄기(鱗莖)이며 성상에 따라 송패(松貝) 및 청패(靑貝)로 구분되어 있다.

대한식물도감에 패모 *F. ussuriensis*와 중국원산인 중국패모 *F. verticillata* var. *thunbergii*가 있으며 국내에서 주로 재배되는 종은 중국패모, 즉 浙貝母이다.

조선약전에서 패모는 조선패모 *F. ussuriensis* 및 같은속식물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중국약전에는 浙貝母, 川貝母, 平貝母, 伊貝母, 湖北貝母 등 5종이 수재되어 있다. 浙貝母는 *Fritillaria thunbergii*의 鱗莖으로 性味는 苦, 寒하며 肺心經으로 들어가 清熱散結, 化痰止咳의 效能을 나타낸다. 川貝母는 기원이 한약규격집과 동일하며 性味는 苦甘, 微寒하며 肺心經으로 들어가 清熱潤肺, 化痰止咳의 效能을 나타낸다. 平貝母는 *F. ussuriensis*의 인경을 기원으로 하며, 伊貝母는 新疆貝母 *F. walujewii* 혹은 伊犁貝母 *F. pallidiflora*의 인경을 기원으로 하며 性味와 效能은 천패모와 동일하다. 湖北貝母는 *F. hupehensis*의 鱗莖을 기원으로 하며 性味는 微苦, 涼하며 肺心經으로 들어가 清熱化痰, 止咳, 散結의 效能을 나타낸다. 이러한 패모류 약재들은 사용시 오두류의 약재가 혼입되는 것을 금하도록 약전에 명시하고 있다.

중국 문헌상 貝母는 중국약전에 수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浙貝母, 川貝母, 平貝母, 伊貝母, 湖北貝母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주로 임상응용되는 것은 浙貝母와 川貝母이다. 浙貝母는 浙貝母 *F. thunbergii*[*F. collicola*; *F. verticillata* var. *thunbergii*]의 인경을 기원으로 하며 peimine, isoverticine, zhebemine, peiminine 등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고, 性味는 苦, 寒하고 肺心經으로 들어가 清熱化痰, 降氣止咳, 散結消腫의 效能이 있다. 川貝母는 暗紫貝母 *F. unibracteata*, 卷葉貝母 *F. cirrhosa*, 梭砂貝母 *F. delavayi*, 甘肅貝母 *F. przewalskii*, 康定貝母 *F. cirrhosa* var. *ecirrhosa* 등을 기원으로 하며, 이외에 중국내에 분포하는 綠黃貝母 *F. cirrhosa* var. *viridiflora*, 雲南貝母 *F. cirrhosa* var. *bonatii*, 太白貝母 *F. taipaiensis*, 黃花貝母 *F. verticillata*, 灘貝母 *F. karelinii* 등을 川貝母로 사용하기도 한다. 性味는 甘苦, 微寒하고 肺心經으로 들어가 清熱潤肺, 化痰止咳, 散結消腫의 效能이 있다. 함유성분으로 暗紫貝母는 songbeisine, sonbeinine 등, 卷葉貝母는 fritimine, sipeimine(imperialine) 등, 梭砂貝母는 delavine, chuanbeinone,

delavine 등, 甘肅貝母는 minpeimine, minpeiminine, chuanbeinone, delavine 등이 있다. 平貝母 *F. ussuriensis*는 조선패모라 부르기도 하며 sipeimine-3-β-D-glucoside, peimine, pingpeimine A, B, C 등을 함유하며, 性味는 苦辛, 微寒하며 肺經으로 들어가 清熱潤肺, 化痰止咳의 效能이 있다. 伊貝母는 伊貝母 *F. pallidiflora*[伊犁貝母]와 新疆貝母 *F. walujewii*[天山貝母]를 기원으로 하며, 性味는 苦甘, 微寒하며 肺經으로 들어가 清肺, 化痰, 散結의 效能을 나타낸다. 성분으로 伊貝母는 imperialine, peimine, sipeimine, yiheissine 등을, 新疆貝母는 imperialine, sinpeimine A 등을 함유하고 있다. 湖北貝母는 *F. hupehensis*의 인경을 기원으로 하고 peimine, hupehenine 등을 함유하며, 性味는 苦甘, 寒하며 化痰止咳, 解毒散結의 效能이 있다.

한편 土貝母는 박과 Cucurbitaceae 식물인 토패모 *Bolbostemma paniculatum*의 괴경을 기원으로 하며 이명으로 大貝母, 假貝母, 藤貝母 등이 있다. 성분은 tubeimosides 등 saponin을 함유하며, 패모류 생약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나, 패모로 잘못 유통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천패모는 川貝라 하며 소형이고, 절패모는 浙貝, 象貝, 大貝 등이라 하며 대형으로 크기에서 차이가 있다. 川貝母는 苦甘, 微寒으로 滋潤性이 강하며 肺熱燥咳, 肺虛勞咳에 적합한 반면, 浙貝母는 苦, 寒으로 開泄의 힘이 강하고 外感風邪, 痰熱鬱肺의 咳嗽에 적합하다. 즉 川貝는 虛證에, 浙貝는 表邪의 實證에 많이 사용한다. 이외에 清熱散結의 效能은 비슷하나 浙貝의 용도가 川貝보다 더 넓은 편이라 한다.

절패모, 천패모 이외에 많은 종류의 패모가 있으므로, 수출입되는 패모들의 감별방법의 개발, 품질규격의 설정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같은 문제는 패모 이외에 모든 유통되는 생약에 공통되는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廣藿香

廣藿香은 꿀풀과 Labiatae 식물인 광곽향(廣藿香) *Pogostemon cablin*의 지상부를 건조한 것으로 대한약전에 규정되어 있다. 藿香은 한약규격집에 수재되어 있으며 별명이 土藿香, 排草香이며 排草香 *Agastache rugosa*(꿀풀과 Labiatae)의 지상부로 기원을 정하고 있고 芳香化濕藥에 속한다.

조선약전에 방아풀(곽향)은 방아풀 *Agastache rugosa*과 향방아풀 *A. formosanum*의 전초로 정하면서 유사약제로 오리방풀속(*Isodon*속) 식물의 혼입을 금하고 있다. 중국약전에는 광곽향만이 수재되어 있으며 기원식물은 같은 식물인 廣藿香 *Pogostemon cablin*의 지상부로 정하고 있으며, 性味는 辛, 微溫하며 脾胃肺經으로 들어가 芳香化濁, 開胃止嘔, 發表解暑의 效能을 나타낸다.

배초향은 방아잎, 토곽향, 곽향 등의 이명이 있으며 대한식물도감에는 배초향(*Agastache rugosa*) 이외에 곽향(*Teucrium veronicoides*), 방아풀(*Isodon japonicus*)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배초향과는 다르다.

중국 문헌에서 廣藿香과 藿香을 볼 수 있는데, 廣藿香은 이명이 藿香, 海藿香 등으로 1년생 초본인 廣藿香 *Pogostemon cablin*[*Mentha cablin*]의 전초를 기원으로 하고 별명이 枝香이고, 藿香은 이명이 土藿香, 排香草 등으로 1년생 혹은 다년생 초본인 栝향 *Agastache rugosa*의 지상부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 함유성분을 보면, 栝향은 휘발성 정유(0.28%) 중에 methylchavicol(estragole) 80% 이상이고 기타 anethole, anisaldehyde, limonene, 1-caryophyllene, β -elemene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광곽향은 경엽에 휘발성 정유(1.5%) 중에 patchouli alcohol(31.9%), seychellene(9.9%), α -guaiene(8.8%) 등이 있다. 한편 落馬衣는 馬衣葉, 土防風, 臭草, 土藿香(廣東), 野蘇麻, 臭蘇頭, 防風草, 排風草, 臭蘇 등의 이명이 있으며 꿀풀과 Labiatae 식물인 廣防風 *Epimeredi indica* [*Anisomeles indica*]의 전초를 기원으로 한다. 性味는 辛 苦, 平하며 祛風濕, 消瘡毒의 效能을 나타내며, 광곽향과 다른 생약이지만 혼동되어 유통되기도 한다고 하였다(Chen et. al., 2000)

性味와 效能을 보면, 栝향은 辛, 微溫하며 肺 脾 胃經으로 들어가 祛暑解表, 化濕和胃의 效能이 있으며, 광곽향은 栝향과 性味가 같으며 脾 胃 肺經으로 들어가 芳香化濕, 和胃止嘔, 祛暑解表의 效能을 나타낸다.

광곽향과 栝향은 모두 방향성 정유식물로 휘발성 정유성분을 함유하고 성분 및 약효면에서 유사하여 병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수입되는 것은 광곽향이고 국내 생산되는 것은 栝향이므로 두 식물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鬱金

鬱金은 活血化瘀藥에 속하며 姜黃(薑黃) *Curcuma longa*(생강과 Zingiberaceae)의 덩이뿌리를 그대로 또는 주피를 제거하고 썬서 말린 것이라 대한약전에 규정되어 있다. 薑黃은 한약 규격집에 수재되어 있는데 별명은 조강황(條薑黃)이며 姜黃(薑黃) *C. longa*의 뿌리줄기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 울금과 姜黃은 같은 식물인 姜黃 *C. longa*이며 덩이뿌리(塊根)는 울금이 고 뿌리줄기(根莖)는 姜黃이며, 노란색의 황색소는 curcumin류 성분이고 울금이 좀 더 진한 황색을 나타낸다. 울금의 명칭은 본 약재가 瘀血을 祛하고 肺金의 鬱을 開泄하는 效能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대한약전에 莪朮은 별명이 봉아출(蓬莪朮)이며 봉출 *C. zedoaria*의 뿌리줄기를 그대로 또는 수증기로 썬서 말린 것을 기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약전에서 莪朮의 기원식물도 동일하다. 국내에 *Curcuma*속 식물은 자생하지 않으며 도입하여 남부지역에서 재배생산하기도 한다.

조선약전에서는 울금은 울금 *C. aromatica*, 姜黃 *C. longa*의 덩이뿌리, 姜黃은 姜黃 *C. longa*, 울금 *C. aromatica*, 누른姜黃 *C. zanthorrhiza*의 뿌리줄기, 이출(봉출)은 아출(봉아출)

*C. zedoaria*의 뿌리줄기로 기원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약전에 鬱金, 薑黃, 莪朮이 수재되어 있는데, 鬱金은 溫鬱金 *Curcuma wenyujin*, 薑黃 *C. longa*[黃絲鬱金], 廣西莪朮 *C. kwangsiensis*[桂鬱金] 혹은 蓬莪朮 *C. phaeoaulis*[絳絲鬱金]의 塊根을 기원으로 하며, 性味는 辛 苦, 寒하며 肝 心 肺經으로 들어가 行氣化瘀, 清心解鬱, 利膽退黃의 效能이 있다. 薑黃은 *Curcuma longa*의 根莖을 기원으로 하며, 性味는 辛 苦, 溫하며 脾 肝經으로 들어가 破血行氣, 通經止痛의 效能을 나타낸다. 片薑黃은 溫鬱金 *Curcuma wenyujin*의 근경을 縱으로 두껍게 절단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莪朮은 蓬莪朮 *C. phaeoaulis*, 廣西莪朮 *C. kwangsiensis* 혹은 溫鬱金 *C. wenyujin*[溫莪朮]의 根莖을 기원으로 하고, 性味는 辛 苦, 溫하며 肝 脾經으로 들어가 行氣破血, 消積止痛의 效能이 있다. 郁은 鬱의 中國簡體字이며 姜은 薑의 간체자이므로 鬱金과 郁金, 薑黃과 姜黃은 같다.

중국에는 생강과 Zingiberaceae 식물이며 *Curcuma*속 생약으로 莪朮, 薑黃, 鬱金 세가지가 있는데 유사한 면이 많으나 실제로는 특성이 다르고 형태도 구분된다. 莪朮은 이명으로 蓬莪朮, 蓬朮, 蓬莪朮 등이 있으며 기원식물로 莪朮 *Curcuma aeruginosa*[*C. zedoaria*], 廣西莪朮 *C. kwangsiensis*[桂莪朮, 毛莪朮], 溫鬱金 *C. wenyujin*[溫莪朮]의 근경이며 性味와 效能은 중국약전과 동일하다. 함유성분은 각각 정유 중에 sesquiterpenoid 성분으로, 아출은 curzerenone(44.93%), germacrone(6.16%), borneol(4.28%) 등이며, 광서아출은 borneol(11.33%), curzerenone(9.92%), germacrone(7.0%), curcumol(4.15%) 등이며, 온울금은 curzerenone(20.35%), curdione(14.76%), curcumol(7.66%) 등 및 curcumin 등을 함유하고 있다. 薑黃은 *C. longa*[*C. domestica*]의 근경으로 姜黃素류 화합물인 curcumin 등, sesquiterpenoid 성분인 curlone, turmeronol 등, 다당류인 utonan A 등, 정유(4.2%) 중에 turmerone 등을 함유하고 있다. 性味는 苦 辛, 溫하며 脾 肝經으로 들어가 破血行氣, 通經止痛의 效能을 나타낸다. 姜黃의 유사식물로 온울금 *C. wenyujin*과 천울금 *C. chuanyujin*의 側根莖을 姜黃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鬱金은 溫鬱金 *C. wenyujin*[溫州蓬莪朮; 黑鬱金], 薑黃 *C. longa*[黃姜; 黃絲鬱金, 廣鬱金], 廣西莪朮 *C. kwangsiensis*[莪朮, 桂鬱金], 莪朮 *C. aeruginosa*[絳絲鬱金], 川鬱金 *C. chuanyujin*[白絲鬱金; 黃白絲鬱金]의 塊根을 기원으로 하며, 性味는 辛 苦, 寒하며 心 肝 膽經으로 들어가 活血止痛, 行氣解鬱, 清心涼血, 疏肝利膽의 效能을 나타낸다. 함유성분을 보면 온울금은 curcumin, demethoxycurcumin, bisdemethoxycurcumin 등을, 姜黃은 curcumin, demethoxycurcumin, bisdemethoxycurcumin 등과 정유성분으로 turmerone, germacrone 등을, 광서아출은 정유성분으로 β -pinene, cineole, borneol 등을, 이출과 천울금도 curcumin, demethoxycurcumin, bisdemethoxycurcumin 등을 함유하고 있다.

毛鬱金 *C. aromatica*은 중국내 소량 재배되어 상품으로 되지 않고 莪朮의 기원식물로 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에 浙江

溫州지역의 瑞安에서 주요 품종으로 溫鬱金 *C. wenyujin*이 생산되었는데 실제로는 毛鬱金 *C. aromatica* cv. *wenyujin*이었으며, 지상부의 형태상 차이는 있다. 현재는 생산량이 적은 毛鬱金 *C. aromatica*은 溫鬱金 *C. wenyujin*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蓬莪朮(莪朮)의 학명에 있어서 보통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莪朮 *C. zedoaria*은 藍心姜 *C. aeruginosa*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식물은 중국내 분포하지 않아, 현재는 蓬莪朮 *C. phaeocephala*로 수정하여 중국약전에 수록하였다. 그런데 *C. zedoaria*, *C. aeruginosa*, *C. phaeocephala*, 이 3종은 형태적 차이가 있다고도 하며 기원식물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식물분류학적인 동정이 필요할 것이다. 和漢藥百科圖鑑(難波, 2000)에서 울금, 강황, 아출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기도 하였다.

中國名(原植物)	學名	藥用部位	本草名稱	生藥名稱	產地
薑黃	<i>Curcuma longa</i>	根莖	鬱金	薑黃	四川, 雲南, 廣東, 福建, 陝西
		塊根		黃絲鬱金	四川
溫鬱金	<i>C. wenyujin</i>	主根莖	溫州蓬莪朮	莪朮	浙江
		根莖	薑黃	片薑黃	浙江
		塊根		溫鬱金	浙江
川鬱金	<i>Curcuma</i> sp.	根莖	薑黃	文朮	四川
				薑黃	四川
		塊根		白絲鬱金	四川
莪朮	<i>C. aeruginosa</i>	主根莖	蓬莪朮	文朮	四川
		塊根		綠絲鬱金	四川
桂鬱金	<i>C. kwangsinensis</i>	主根莖		莪朮	廣西
		塊根		莪朮	廣西

薑黃과 鬱金은 동일식물이지만 이용부위가 다르므로 구분되는데, 둘다 活血破瘀, 行氣止痛하는 작용이 있지만 薑黃은 辛溫行散하므로 寒凝에 의한 氣滯血瘀에 적용하고, 鬱金은 苦寒降泄하므로 血熱에 의한 瘀滯에 적용한다. 이외에 薑黃은 祛風勝濕하므로 痹證에 효과가 있고 鬱金은 清心涼血하는 효능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울금, 강황, 봉출(아출), 모두 活血化瘀藥에 속하며, 이것들의 뿌리의 형상이나 효능(健胃·利膽·鎮痛작용)이 비슷한데, 薑黃은 脾에 들어가 血中の 氣를, 蓬朮은 肝에 들어가 氣中の 血을, 鬱金은 心에 들어가 心包의 血을 治한다고 한다. 역대본초서 <本草綱目>에서 울금과 강황은 원래 다른 종류의 약재이고, 울금은 苦寒하며 적색이고, 강황은 辛溫하며 황색이고 생강의 괴근과 유사하며, 울금의 유통물량은 적고 강황은 많은데, 둘 다 동일한 것으로 하여 큰 것은 강황, 작은 것은 울금이라 하였으나 구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울금, 강황, 아출은 기원식물과 이용부위에 따라 생약명과 효능이 달라지므로 *Curcuma*속 약용식물의 식물분류

학적인 동정과 효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맺음말

국내에서 유통되는 韓藥材들의 起源植物에 대한 검토와 중국, 북한, 일본 등의 약전상의 기원과 비교하여 올바른 기원식물을 설정하기 위한 문헌고찰을 하였다. 그러나 고찰결과는 성분 및 약리연구가 아닌 문헌을 바탕으로 정리된 것이라 올바른 기원설정이라는 목적달성에는 한계가 있으나 우리나라 현재의 유통정황에 대한 파악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해당 韓藥材의 藥理的 有效性이 인정되는 起源植物이 결정되면, 藥用植物의 生産 및 開發 뿐만 아니라 品質評價를 통해 良質의 韓藥材가 流通될 수 있을 것이다. 천연약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한약재의 이용이 늘어감에 따라 수요 충당을 위해 수입 약재가 증가되고 있다. 한약관련 전문가들은 임상응용을 통해서 起源, 藥性 및 效能에 대해 기록하고 개정되어 왔던 역대 본초서를 고증하고 과학적인 성분 및 약리연구를 통한 올바른 기원식물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서인 대한약전도 꾸준히 정확한 기원식물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사업과 함께 약전을 개정하는 등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한의학은 한의이론은 중국으로부터 도입하여 한국에 맞게 발전하였으며 한약재는 국내에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현재 규정되어 있거나 사용되고 있는 기원식물이 한의이론 측면에서 역대 본초서에 분류된 원래의 한약재와는 달라지기도 한다.

본 고찰에서는 기원식물에 대해 논란이나 혼동이 있는 한약재에 대하여 여러나라의 약전 및 문헌을 비교 검토하였다. 예를 들면 白朮과 蒼朮, 鬱金과 薑黃, 黃精과 萎蕤, 防己와 木防己, 防風과 植防風, 白芍藥과 赤芍藥, 附子和 草烏 등 20종의 한약재의 기원에 대하여 논하였다.

앞으로 다양한 韓藥材의 起源植物들에 대한 성분 및 효능을 꾸준히 조사 연구함으로써 진위감별 뿐만아니라 품질평가를 통해 적합한 기원식물을 설정하고 유통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튼 한약재의 기원식물이라 함은 해당 한약재의 약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유통되는 한약재의 기원이나 품질규격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流通體系 確立, 양질이며 안전한 한약재의 生産 및 供給, 한약재의 開發 및 品質改良 등을 이루어 내며, 나아가 韓藥材(藥用植物) 産業의 발전과 함께 國民健康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우리나라 한약분야의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국내외 한의약분야의 복잡한 정황과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한약재의 생산 및 개발, 품질 및 유통관리, 한약제조 등 韓方産業分野에 참여할 수 있는 韓藥關聯 專門人力의 양성과 함께 國家 韓方政策的 측면의 制度的 支援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판단된다. 또한 한약관련 법령, 인력, 제도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리와 아울러 올바른 한방정책 방향이 설정되고 이에 대한 강

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용문헌

- Chen X., Z. Du, J. Zhang, and Z. Wang. 2000. Identification of herba pogostemonis and its confused species *Anisomeles indica*. *Zhong Yao Cai* 23(5): 261-263.
- Liu Y. P., H. Cao, G. R. Han, H. Fushimi, and K. Komatsu. 2002. matK and its nucleotide sequencing of crude drug chuanxiong and phylogenetic relationship between their species from China and Japan. *Yao Xue Xue Bao* 37(1): 63-68.
- Mizukami H., R. Shimizu, M. Kohda, F. Kawanishi, and N. Hiraoka. 1998. Phylogenetic analysis of *Atractylodes* plants based on chloroplast trnK sequence. *Biol. Pharm. Bull.* 21(5): 474-478.
- Tang W. and G. Eisenbrand. 1992. Chinese drugs of plant origin; Chemistry, pharmacology, and use in traditional and modern medicine. Springer-Verlag.
- 國家藥典委員會. 2000. 中華人民共和國藥典. 化學工業出版社.
- 國家中醫藥管理局《中華本草》編纂委員會. 1999. 中華本草. 上海科學技術出版社.
- 김인락. 2003. 한약재정보, 김인락 교수가 쓰는 주의해야 할 한약재들. 민족의학신문 제418-437호.
- 김호철. 2001. 한약약리학. 집문당.
- 難波恒雄. 2000. 和漢藥百科圖鑑. 中國醫藥科技出版社.
- 배기환. 1999. 원색도감 한국의 약용식물. 교학사.
- 선병윤, 김태진, 김상태, 서형배, 김철환. 2000. 한국 산형과 빛미 나리속 식물의 계통. *식물분류학회지* 30(2): 93-104.
- 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한약전제8개정편찬위원회. 2002. 대한약전 제8개정. 약업신문.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2. 대한약전의한약(생약)규격집. 동원문화사.
- 신길구. 1988. 신씨본초학. 수문사.
- 신민호. 2002. 임상본초학, 개정증보 수정판. 영림사.
- 閻文玖. 1994. 中藥材真偽鑑定. 人民衛生出版社.
- 이승택, 채영암. 1996. 약용작물재배. 향문사.
- 이영노. 2002. 원색한국식물도감. 5판. 교학사.
- 이창복. 1989. 대한식물도감. 4판. 향문사.
- 日本藥局方解説書編輯委員會. 2001. 第14改正 日本藥局方解説書. 廣川書店.
- 임록재. 1998. 조선약용식물지. 농업출판사.
- 장진성, 김 휘. 2003. 한국수목의 학명에 대한 재고. *한국임학회지* 92(1): 71-86.
- 전국한의과대학 본초학교수 공편저. 1991. 본초학. 영림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건부 약전위원회. 199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전. 의과학출판사.
- 中國本草圖錄編輯委員會. 1990. 中國本草圖錄. 人民衛生出版社
- 중약대사전편찬위원회. 1998. 원역 중약대사전. 도서출판 정담.
- 中華人民共和國衛生部藥政管理局 中國藥品生物製品檢定所. 1997. 現代實用本草. 人民衛生出版社.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0. 한약품질 및 유통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한국생약학교수협의회. 1994. 본초학. 아카데미서적.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1998. 1998년도 한약재 품질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보건복지부.
- 한대석, 한덕룡, 유승조, 백완숙. 1995. 한국·중국·일본의 생약 비교연구. 영림사.
- 허옥순, 이진하, 김세은, 주인선, 신동우, 이정호, 김지연, 강숙경, 이형규, 백승화, 문병우, 김진수. 2000. 유통 방기의 화학적 분석. *식품의약품안전청연구보고서* 4: 111-118.